

# 만원으로 미래를 키우다 YWCA 1922 장학금

100주년을 앞둔 YWCA가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1년에 한번 1만원만 내면 Y-틴, 대학·청년Y 30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1년에 1만원씩 5년간 후원

**후원계좌**  
농협 301-1922-0000-31  
(예금주 한국YWCA연합회)

**장학금 지급**  
2017년부터 100주년까지 매년 30명  
Y-틴, 대학·청년Y 임원활동 장학금

**문의**  
전화 02-774-9703(장학위원회)

**YWCA 한국YWCA연합회**

##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관서발전	063.462.4491

# 한국 YWCA

2019년 4월호  
April  
Vol.559

**기획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바람**  
손을 잡는 것에서 평화가 시작된다  
여성참여로 한반도 평화정착 앞당긴다  
'민의 참여'의 플랫폼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  
강화에서 고성까지 평화를 잇다

**현장 제17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조형 한국여성재단 고문, 젊은지도자상 장혜영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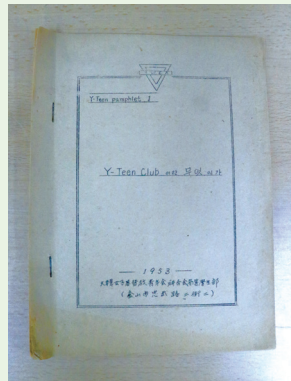
**이달의 포커스**  
한국YWCA연합회 창립 97주년 기념예배·역사관 '이제' 개관

**탈핵**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최종 승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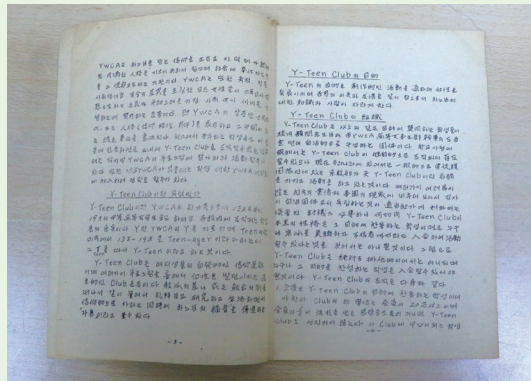
**여성**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이후의 과제



# 1953년 Y-틴 하령회 갖고 클럽협의회 조직



1953년 Y-틴 최초의 팸플릿



Y-틴 클럽 목적에 대해 나와있다.

Y-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에 따라 오늘도 전국 35개 5천명 Y-틴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22년 한국YWCA가 창립될 당시 Y-틴과 대학생은 학생YWCA라는 한 조직으로 활동하였고, 1953

년에 대학생부와 Y-틴부로 분리되었다. 학생YWCA 운동이 성인 활동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계기는 1948년 임시전국대회에서 학생하령회를 분리시켜 YWCA, YMCA 학생들이 합동으로 '청년을 그리스도에게'라는 주제로 집회를 가짐으로써 기독교학생운동의 사명을 재확인하면서부터였다. 1953년 대학부와 분리된 Y-틴부는 7월에 피난지 부산에서 YMCA Hi-Y와 합동으로 Y-틴 하령회를 따로 가짐과 동시에 11개 서울 여자고등학교와 부산 남성여고 대표로 전국 Y-틴 클럽협의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954년에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던 Y-틴부를 각 회원YWCA에 속하게 함으로써 Y-틴부 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클럽지도자 강습회, 간사협의회 등을 열어 지도력 양성에 주력했다. 1949년부터 다시 시작된 Y-틴 하령회는 1958년 8회를 끝으로, 1959년부터는 Y-틴 전국대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부산 하령회 이후 학생들은 Y-틴 클럽활동에 열성을 보이며 새로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각 클럽은 일주일에 한번 씩 모일 때마다 '첫째, 개성을 발전시킨다 둘째, 세계의 이웃과 친선을 도모한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라게 한다'는 Y-틴 목적을 제창했다. 프로그램은 예배로 시작하여 지·덕·체 교육을 균형 있게 진행했다.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봉사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토론회, 좌담회 형식의 프로그램을 늘리고 1970년대 중반 '기독교 신앙강화'를 목적으로 성경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으며, 1980년대 이후 Y-틴 활동이 운동으로 확산되어 Y-틴 회원들의 활동은 더욱 든든한 기반을 닦아갔다.

Y-틴은 '1)예수의 삶을 본받고 가르침을 실천한다 2)개성을 발달시킨다 3)모든 일에 바른 삶을 실천한다 4)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창출한다 5)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주인의 책임을 다한다 6)이웃을 사랑하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한다 7)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앞장선다 8)첨단 지식과 바른 윤리와 건강한 몸을 구비한 지도력으로 성장한다 9)평화와 통일의 주역이 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올바른 역사인식, 탈핵, 청소년 자살예방, 안전한 먹거리, 성범죄 예방' 등을 주제로 전국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2019.4 한국YWCA



### 표지이야기

한국YWCA연합회는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4월 27일 'DMZ민+평화손잡기'행사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이 DMZ평화누리길 '금파임진강적벽'에서 평화의 조각보를 이어 평화손잡기를 하며 평화통일을 염원했다.(사진:연합회 안정희 부장)

### 2019년 5월 주요일정

#### 5월 13일~14일

전국 사무총장 역량강화교육(5~7년차)

#### 5월 16일

제2차 길위의 평화포럼

#### 5월 20일~21일

전국 사무총장 역량강화교육(8년 이상)

#### 5월 22일

동일임금의 날 토론회

#### 5월 27일~28일

전국 사무총장 역량강화교육(3년 미만)

### 제55권 제3호 통권 559호

2019년 4월 30일 발행 (등록번호 서울중,라00001)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김민주·김은주·백수경·이경순

이은혜·이하나·정선경·조한나

편집 배정미·이주영·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차

- 04 **이달의생각** 평화, 탈핵, 성평등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 한영수
- 05 **말씀 묵상**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 안수경

### 기획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바람

- 06 ① 손을 잡는 것에서 평화가 시작된다 | 정지석
- 08 ② 여성참여로 한반도 평화정착 앞당긴다 | 크리스틴 안
- 10 ③ '민의 참여'의 플랫폼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 | 신승민
- 12 ④ 강화에서 고성까지 평화를 잇다 | 편집실

- 15 **입장문**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
- 16 **여성**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이후의 과제 | 류민희
- 18 **탈핵** 방사능오염으로부터 국민안전과 먹거리를 지켜야 | 안재훈
- 20 **평화** 세월호 참사 5주기 아직 떼지 못한 리본 | 임주현
- 22 **청년토크** 애들아 그곳에선 행복해야해 | 대학·청년Y
- 24 **이슈** 우리가 잘 몰랐던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 김성혜
- 26 **이달의포커스** 한국YWCA연합회 창립 97주년 기념예배·역사관 '이제' 개관 | 편집실

- 28 **이달의현장 ①** 제17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편집실
- 31 **이달의현장 ②** 제1차 길 위의 평화포럼 | 편집실
- 33 **이달의현장 ③**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금 전달 | 편집실
- 34 **이달의현장 ④** YWCA 청소년 운동, 우리가 이끈다 | 임진아
- 36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 <생일> | 백보람
- 38 **연합회 소식**
- 41 **추모**故 김현자 명예연합위원 1주기 추모예배 | 편집실
- 42 **회원YWCA 소식**

# 평화, 탈핵, 성평등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한영수  
연합회 회장



올해로 창립 97주년을 맞이한 한국YWCA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성의 힘으로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적극 실천하는 단체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혼 혼한 남북 평화 통일의 기운이 넘쳤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의 만남이 이어지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평화통일이 곧 현실화될 것이라며 잔뜩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며, 정작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일에 주변국들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안타깝고 아쉽기만 합니다.

1953년 휴전 당시 분단을 원치않아 서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중에 한국YWCA는 해방이전처럼 활발한 북한YWCA 설립을 꿈꾸며 다양한 대북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기구는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가 타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참 다행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방사능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돌연변이 유발 물질입니다. 그 엄청난 피해와 파괴를 막고자 한국YWCA는 6년째 탈핵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문화·경제 발전에는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방사능을 유발하는 원전에너지를 선택한 결과가 인류, 나아가 지구의 모든 생물체를 멸망시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발전은 과연 어디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자연을 향한 월권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지구의 한 구성원으로 사는 즐거움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낙태죄’ 합헌 선고 이후 7년 만에 헌법 불합치를 선고하였습니다. 미투(#Me Too) 이전부터 외친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성평등 하지 않은 환경에서 여성에게 도맡겨진 임신, 출산, 양육을 인내하며 묵묵히 살아내고 있는 지구의 반인 여성입니다. 성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여성을 배려해야 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응하며 한국YWCA는 평화, 탈핵, 성평등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 평화, 생명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YWCA는 조직재구조화 실행을 통해 ‘미래’와 ‘청년’을 키워드로 100주년을 준비하며 지속가능한 한국YWCA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모두 함께 마음을 다지며 준비하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YWCA운동은 본질적으로 이 땅의 하나님나라 확장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97년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더 큰 책임으로 한국YWCA 운동을 펼쳐나감으로 정의, 평화, 생명 가치를 실현하는 한국YWCA!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안수경

연합회 Y-틴위원회 위원장·목사



마태복음 16장 21~25절 / 요한복음 20장 19~23절

마태복음서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스물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한 번 뿐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자신의 정체를 ‘그리스도’라고 밝히시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고난, 죽음,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때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메시아의 길이 어떤 길인지 비로소 밝히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은 고난과 죽음, 부활이라는 것을 밝히셨는데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22)”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23)”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24)”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면서도 유익을 주고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과 세상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내버리고 주님을 따라나선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버려도 자기 자신을 버

리지 못한다면 버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죽음으로도 헌신하겠다고 각오하는 신앙의 실천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이후에 찾아 올 온갖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빈 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두 번째로 열 제자가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21)”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22)”고 말씀하셨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며 전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파송하셨듯이, 오늘 희망 없어 보이는 세상과 교회,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파송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YWCA를 통해서 세상으로 보내셨고, 지금까지 함께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것처럼 우리 또한 완전히 주님의 편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생명, 정의, 평화로 물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27 국제평화회의에서 정지석 국경선평화학교 교장(맨 오른쪽)과 장미란 연합회 실행위원이 주제토론을 하고 있다

**정지석**

국경선평화학교 대표·평화학 박사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민(民)의 평화운동’을 주제로 한 ‘4.27 DMZ 국제평화회의’가 4월 26일(금)부터 27일(토)까지 철원에서 열렸다. ‘민의 평화운동의 중요성: 4.27 DMZ 평화손잡기’를 주제로 발표한 정지석 박사의 원고를 요약해 실는다.

### 한국민의 비폭력평화 운동

인간 띠 잇기 운동은 민족독립, 반전반핵, 평화, 환경보호, 인종차별 반대, 난민구호 등 민(民)의 희망과 요구를 평화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운동이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는 1989년 8월 발트해 3국이 소련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요구하며 벌인 인간 띠 잇기 운동으로, 정치권력자들은 평화적 운동을 탱크로 짓밟을 수 없었고 민(民)의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민의 변혁적 힘은 각성된 민의 참여와 단결에서 나온다. ‘4.27 DMZ 민+ 평화손잡기’운동 한반도 평화통일을 희망하는 민(民)의 비폭력평화운동으로 남북한 국경마을에서 처음 일어났다.

### 운동의 발상과 출발

기도와 정치적 각성이 이 운동의 정신적 바탕으로, 두 요인이 결합되어 평화손잡기 운동은 출발했다. ‘전쟁 노, 평화 예스’를 슬로건으로 2017년 가을부터 2018년 2월 평창동계 올림픽 개막일까지 소이산 평화기도회를 하면서 민(民)의

평화운동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강해졌고, 수개월간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DMZ분단 현장에 와서 손을 잡는 것’을 생각했다. 2018년 10월, 한반도 평화를 기도하는 목사들의 모임은 이 운동을 함께 하자고 결정했다. 이 운동은 본질적으로 기도와 믿음의 운동이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올해 2월 27-28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결렬됐다. 2018년 한반도 평화운동에서 한국 정치지도자들이 풀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이 비무장지대(DMZ) 남쪽 통제권을 가진 UN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의 불허로 무산된 일, 또 하나는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는 남한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4.27 판문점과 9.19 평양,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치 지도자들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노력들은 미국의 통제권 아래 무산되었다.

이런 정치 현실을 보면서, 민은 남북 정치지도자들의 노

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민의 참여와 지지가 함께 가야 한다. 하지만 민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쉽지 않은 정치적 현실에서, 한반도 평화과정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해답은, 민이 직접 평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4.27 평화운동을 촉발시킨 정치적 각성이다.

### 왜 4.27 DMZ 인가

2018년 4월 27일에는 남북한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평화를 만들었다면, 2019년 4월 27일에는 민이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는 의지가 4.27 운동에 담겨있다. 2019년은 3.1독립운동의 백주년이다. 남북 분단은 미완의 독립으로, 평화통일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 정신은 유효하다. 3.1 독립운동은 민의 운동이며 4.27 평화통일 운동 역시 민의 평화운동이다. 3.1독립운동은 4.27평화운동으로 이어진다.

왜 비무장지대(DMZ) 마을에서 모이는가. 한국전쟁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은 땅, 지금도 많은 지뢰와 중무장한 군사력이 대립하는 현장,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땅, DMZ는 남북한 평화가 실현되어야 하는 곳이다. DMZ 남쪽 지역은 UN 사령관이 통제권을 갖고 있다. 한국전쟁의 휴전조약이 북한과 UN군 사령관(미국 사령관) 사이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휴전조약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이유다. 민은 남북미 간에 평화조약을 요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4.27 DMZ민+ 평화손잡기’는 DMZ 남쪽 지역의 주권의 회복을 요구한다.

### ‘민+’에 담긴 평화코드

왜 ‘민+’ 인가? 민+는 4.27 운동이 사람 중심의 평화운동을 선언한다. 방법과 내용, 동기와 과정, 목표에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민+ 운동은 인간의 욕망을 초월하는 정신 운동이요, 진리를 실천하는 진리운동으로, 민의 위와 안에서 이 운동을 주도하는 절대자의 현존을 고백한다. 그러므로 인간적 기준에서 가능성과 불가능성, 성공과 실패의 평가에서 자유롭다. 스스로 일어나는 자발적 운동이다. 이 점에서 촛불 민주주의 혁명운동

과 같다. 조직과 돈의 얽매임이 없다. 민의 운동을 조직과 돈으로 했던 과거 습관을 벗어버리겠다는 의지가 민+ 코드에 담겨있다.

### 평화의 손잡기

우리는 인간 띠 운동이란 말 대신 평화의 손잡기 운동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4.27 DMZ 민+ 평화손잡기’ 운동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향한 긴 안목을 요청하는 문화혁명운동을 지향한다. 손을 잡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힘 모아 실현하겠다는 정신적 각성과 다짐을 표현한다. 손을 잡는 행위는 민이 협력하는 정신적 힘을 키워가자는 의지를 표현한다.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은 자기변혁 교육 과정을 가질 것이다. 2018년 4월 27일, 적대적이었던 남북 정상들이 손을 잡는 장면을 보면서, 평화는 손을 잡으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다.

### 제2의 촛불 평화운동

이 운동은 촛불운동으로부터 확신과 영감을 받고 한반도 상황에 적용한 평화운동이다. 하나의 촛불에서 수백만 촛불로 커진 것처럼, 민의 뜻과 힘이 모일 때 남북한 평화통일은 실현된다. 보통 사람들의 힘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창조한다. 이 신념이 촛불운동의 정신이다. 4.27 평화운동은 촛불정신을 계승한다.

국가 간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민은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4.27 평화손잡기 운동이다. 민의 힘은 민의 의지를 집단적으로 표현할 때 나온다. 과연 그리 많은 사람들이 DMZ 마을까지 오겠느냐는 회의론을 펴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 운동은 동원하는 운동이 아니라 믿을 운동이다. 민의 평화운동은 민의 각성과 자발적인 참여에서 일어난다.

4.27 평화운동은 민의 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민의 마음을 믿을 때 평화는 가능하다. 평화운동은 본질적으로 민의 운동이다. 진리를 향한 민의 힘을 믿는 운동이다.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크리스틴 안

## 여성참여로 한반도 평화정착 앞당긴다

크리스틴 안  
WomenCrossDMZ 기획자·재미동포 평화운동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민(民)의 평화운동’을 주제로 한 ‘4.27 DMZ 국제평화회의’가 4월 26일(금)부터 27일(토)까지 철원에서 열렸다. 주제발표를 한 WCD(WomenCrossDMZ: 여성평화결기) 기획자 크리스틴 안의 원고를 요약해 실는다.

“북한과 접촉하지 않았던 과거의 방법은 통하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행해지기 바라는 것을 위해 손을 뻗고, 우정을 쌓고, 접촉하고, 함께 걸으며 우리가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글로리아 스타이넴(페미니스트 저널리스트, 사회운동가)

지난 1년 세계는, 한반도 핵전쟁 전망이 우세했던 한반도가 지도자들에 의해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 이제 70여년이 넘는 동안의 한국전쟁을 끝낼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다가왔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당사자 간의 평화 분위기 조성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국 또한 북한과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 평화협정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한국전쟁 위기설을 낮추고 북한과 남한 그리고 미국과의 평화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이 과

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이 평화협상에 참여했을 때, 남성만 참여할 때보다 그 조약이 최소 15년 이상 성공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35퍼센트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여성 운동가들이 협상테이블에 함께하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협정 체결이 중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남북 평화 과정에 관여하는 여성은 아주 극소수이다. 이것은 항구적인 평화협정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시민 외교, 인도적 지원, 교육적 교류를 통해 북한주민들과 관계를 맺어온 여성 운동가들이 협상테이블에 함께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단 70주년을 맞은 2015년 국제평화여성들이 주축이 된 여성평화결기(WomenCross DMZ)는 첫째, 1953년 미국, 북한, 중국이 체결한 휴전협정을 대체할 항구적인 평화 정착 둘째, 이를 위한 모든 평화정

착 과정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두 가지 커다란 성장이 우리의 평화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첫째는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위한 노력, 6·25전쟁에서 희생된 미군 유해 송환 등을 약속한 일,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초당파적 여성, 평화, 안보법에 서명하면서, 갈등 발생 후 예방·종결·재건하는 과정에 여성 참여를 지지한다는 점을 의미 있게 강조한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려웠다. 트럼프 정부는 ‘코피작전(미국이 북한을 제한적으로 타격하는 예방타격)’을 북한에 저울질했고,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의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이 김정일 정권에 핵무기 보유권이 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평화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미국과의 끝까지 않은 전쟁 상태에서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시켜온 국가에 중대한 안전보장 역할을 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역사적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평화 정착 과정에 여성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전쟁이 여성에게 미친 불평등한 영향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의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2000)에 따르면 “민간인,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무력 충돌로 인해 악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평화 대표단과 관련된 여성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한국 여성들은 평화를 촉구하는 운동의 최전선에서 있다. 나는 ‘Women Cross DMZ’를 설립하여 이산가족 상봉과 평화 건설에서의 여성 리더십 계발, 한국전쟁 종식을 촉구했다. ‘국제여성선언’에서 ‘인위적이고 원치 않는 분열로 비극적으로 분리된 한국 가족을 하나로 묶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지도자들에게 군비를 국민의 복지와 환경 보호에 쓰도록 촉구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1953년 휴전협정을 영구적인 평



4.27 DMZ 국제평화회의에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DMZ를 걸었다. 이러한 행동요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 앞으로 나아갈 길

앞으로 ‘Women Cross DMZ’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여성, 평화 및 안보 법안에 성문화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역사적인 기회임을 인식할 때, 이제는 70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을 끝내야 한다. 전세계 여성들이 한국의 평화협정에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노벨평화상, 국제평화연맹, 한국여성평화단체 등과 연대하여 ‘2020년 여성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다.

핵 위기를 해결하고 6·25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길은 외교뿐이다. 우리의 주된 목표는 항구적인 한국 평화 정착이지만, 더 큰 목표는 ‘국가 안보’ 담론을 군국주의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 안보, 정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 평화에 초점을 맞춘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의 비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다른 주요 국가의 여성들과 남북한 여성들을 계속해서 함께 모이게 함으로써, 여성들을 한국 평화과정에 포함시키도록 계속 압박하는 장을 만들 것이다. ‘Women Cross DMZ’는 70년 전쟁의 광기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DMZ를 건너는 등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접근법을 사용해 왔다. 앞으로 평화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여력이 될 것이며, 여성은 그 전달에 가장 강력한 요원이 될 것이다. ♡

# ‘민의 참여’의 플랫폼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

신승민

목사 ·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 집행위원장 · NCCK국장

지난 해 8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소속 교단과 한국YWCA 연합회, 한국YMCA 전국연맹, 남북나눔운동, 굿타이딩스 등 대북한 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독교기관들이 함께 모여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 (이하 한국교회협력단)을 발족하였다.

한국교회협력단은 그 창립 목적을 “4.27 판문점선언을 공동의 실천 과제로 인식하면서, 화해와 상생의 새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며, 한국교회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화해/평화정착을 위한 나눔과 봉사 사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제공한다” (정관 3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히 협력단은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통한 나눔과 봉사 사역에 대하여 한국교회의 신학적 이해를 확산하고 선교적 과제를 제시하며 실천운동을 확산하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지난 해 11월에 개최한 한국교회협력단 발족기념 토론회에서 공동대표 중 한 분인 지형은 목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보수나 진보는 각자의 신앙 가치관에 따라 남북 교류에 힘써왔지만 현재 남북 관계의 틀 자체가 바뀌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는 이미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교회의 보수와 진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국교회협력단이 이 새로운 틀, 새로운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보수와 진보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실천할 때, ‘민의 참여’가 확산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교회를 넘어 시민사회와의 평화연대운동에도 기여하리라 믿는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남으로 뿌리 깊은 분단과 적대의 잔재가 다시 정국을 혼돈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갈등과 반목이 지배했던 예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한반도 평화는 ‘돌이킬 수 없는 민족사적 당위이며 세계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중차대한 역사적 시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 통일의 5대 원칙

### 평화, 자주, 민족대단결, 민의 참여, 인도주의

한국교회는 31년 전인 1988년 2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 (이하 88선언)을 발표하였다. 88선언은 민간에 의해 이룩된 최초의 통일선언으로 민간의 통일운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일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88선언의 죄책 고백은 남북화해의 출발점이 되었고, 통일의 5대 원칙, 즉 “평화, 자주, 민족대단결, 민의 참여, 인도주의”는 한국 교회와 사회에 평화와 통일 운동의 좌표를 제시하였다. 특별히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갈등과 반목이 깊어질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88선언의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통일의 5대 원칙을 되새기면서 기도와 실천해 왔다.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 정책토론회

## 남북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 실현되어야


4.27 판문점선언이 선포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조약 등의 정치, 군사적인 합의를 넘어, 남북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실현되는 ‘민의 참여’를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상호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 70년 이상을 반복하고 증오하며 살아 온 남과 북의 주민들이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길은 서로 만나 부대끼고, 배우며 이해하며,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이 길이 또한 우리를 화해와 상생,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이끌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형제, 자매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서로 돕고 기도하는 일, 즉 인도주의의 실천이야말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지름길이다. 2019년 UN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1,1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영양실조상태에 있으며 그 중 90~92% 아동들이라고 한다. UN제재가 계속되는 한 이러한 곤궁함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교회협력단은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바닥의 ‘민의 참여’와 ‘인도주의’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1987년 스페인 엘 에스코리알에서 모여 ‘나눔의 원칙’이라는 중요한 신앙선언을 발표했다. 즉 나눔과 봉사의 사역에 있어 ‘일방적 제공자, 일방적 수혜자도 없으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물 받



정책토론회 발제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은 것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라는 신앙고백이다. 지난 3월 초에 한국교회협력단이 주관한 “치유와 화해 사역을 향하여”라는 국제세미나에서도 국내외의 모든 참가자들이 이 신앙고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공유하였다. 엘 에스코리알 신앙고백은 남북교회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거저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곤궁에 처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한국교회협력단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고 존재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분단시대의 증오와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길이 매우 지난하고 가시밭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 발족식 중 선언문낭독



4.27 DMZ민(民) + 평화손잡기 단체사진


편집실

한국YWCA연합회는 남북정상회담 1주년인 4월 27일 (토) 14시 27분 파주시 금과리에서 'DMZ민(民)+평화손잡기' 행사를 열었다.

DMZ평화인간띠잇기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DMZ민(民)+평화손잡기'행사는 경기도 216km와 강원도 284km 총 500km의 'DMZ 평화누리길' (한강하구 중립수역인 강화에서 김포~고양~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까지) 10개 접경지역에 포스트를 마련하여 50만 명의 시민이 손을 잡고 '평화의 인간띠'로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릴레이운동이다. 평화누리길 500km(500,000m), 1m당 한 사람씩 선다면 500,000명이 손을 잡고 동해에서 서해까지 남북 분단의 국경선(DMZ) 마을 길 위에 평화인

간띠(Peace Human Chain)를 형성할 수 있다.

'꽃피는 봄날 DMZ로 소풍 가자'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실행위원, 위원, 실무자, 남양주 YWCA, 대전YWCA, 서울YWCA, 안양YWCA, 진해YWCA에서 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YWCA연합회는 평화누리길 100km 지점인 파주 구간 중에서도 10구간인 '금파임진강적벽'에서 이 행사를 주관했다.

YMCA전국연맹과 공동예배를 드린 후, 오후 14시 27분에 '평화의 손잡기'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고 '4.27 DMZ민(民)+평화손잡기 평화선언문'을 낭독하며 "이 땅의 평화 체제는 세계의 대세이며 하늘의 뜻이고 민족의 염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날 강릉YWCA, 고양YWCA, 동해YWCA, 목포YWCA, 부천YWCA, 서울YWCA, 안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인천YWCA, 전주YWCA, 파주YWCA도 평화누리길 각 지역 포스트에서 평화손잡기로 평화의 인간띠를 이었다.



강릉YWCA 인제DMZ생명평화동산



고양YWCA 고양시 대화종합운동장



동해YWCA 인제 DMZ생명평화동산



목포YWCA 임진각 DMZ내 생태탐방로



부천YWCA 김포평화누리길



서울YWCA 남산 백범광장



안산YWCA 파주DMZ



의정부YWCA 연천 학곡리 적석총



인천YWCA 강화도 연미정, 강화대교 구간



전주YWCA 파주 울곡습지공원 임진나루



파주YWCA 파주시 예운문화마당



YWCA연합회 파주금파임진강적벽

평화선언문

4.27 DMZ 민(民)+평화손잡기 평화선언문

# “이 땅의 평화체제는 세계의 대세이며 하늘의 뜻이고 민족의 염원이다”

오늘 우리는 지난 70년 세월동안 민족과 국토를 나눈 슬픈 역사의 현장, DMZ를 마주하고 있다. 잘린 허리 탓에 아직도 ‘스스로 서(獨立)’지 못한 나라가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원통하다. 분단 체제에 안주했던 정치 세력들로 인해 이 땅, 남북의 민족들이 당한 고통이 그 얼마였던가? 하지만 자주와 평화를 내걸고 이 땅의 독립을 선포했으며 민(民)주도의 새 정부를 세웠던 100년 전 그날을 기억하여 그 뜻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 1주기를 맞아 민(民)의 염원이 표출되었다. 죽음과 전쟁의 땅 DMZ를 평화와 생명의 새 땅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단지 이 마음 하나로 우리는 지금껏 낫설었던 이웃들의 손을 힘껏 잡았다. 언젠가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의 손을 함께 맞잡을 날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DMZ를 비롯한 이 땅 전역에서 전쟁의 희생양 된 못 영혼의 넋을 위로하고 사죄했다. 앞선 비극을 이곳서 재현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무언으로 외치는 이들 영혼의 소리를 이곳 DMZ를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라는 하늘 뜻으로 받을 것이다.

분단 70년 지난한 삶을 통해 우리는 평화가 우리들 민(民)의 몫이란 것을 학습했다. 그럴수록 주변국들에 휘둘리지 않을 우리들 자주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가 지켜 회복한 평화가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70년 분단의 고통이 세계의 진보를 위해 밑거름이자 자산이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렇기에 세계는 우리를 믿고 끊어진 허리를 잇는 일에 협조할 일이다. 분단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이 땅은 의당 핵 없는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에 민족을 가르는 장벽을 허물고 이 땅을 자유케하라. 이 곳 DMZ를 평화와 생명의 보고(寶庫), 전쟁 없는 미래의 배움터로 만들 것이다. 70년 다른 체제 속에 살았으나 창조적으로 수렴되는 한민족의 미래, 세계가 놀랄 이 땅의 평화를 펼쳐낼 것이다.

DMZ를 눈앞에 두고 우리들 현실을 다시 생각한다. 과거에 얽매어 미래를 옹기 희망하지 않을 경우 100년 전 그렇게 염원했던 독립국가, 민주공화국은 우리 것 될 수 없다. 자신들 잘못을 덮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민(民)을 추동하는 거짓 세력에 거듭 저항해야 옳다. 남남갈등이야말로 세계평화를 해치는 적폐이기에 민(民)의 각성으로 청산할 것을 선언한다. 종교, 이념, 성별, 신분 차를 넘어 함께 손잡는 4.27 사람 띠잇기 행사가 사람을 편 가르는 일체 분단체제를 불사르는 단초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평화가 ‘세계의 대세이자, 하늘의 뜻이며 민족의 염원’인 것을 세계를 향해 외치자. 우리들 일상이 1년 전 4.27 그날의 그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소리쳐 보자. 이 땅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가 될 것을 믿으며 이를 분단 70년 고통을 겪은 남북 ‘민(民)’의 이름으로 힘껏 선포한다.

2019년 4월 27일  
4.27 DMZ 민(民)+평화손잡기 행사 참가자 일동

입장문

#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여성들을 고통 받게 했던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임신 중절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낙태죄’의 사실상 위헌은 ‘미투’(#MeToo) 이전부터 외쳐온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뤄낸 결실이다. 1953년 형법 269조와 270조가 제정된 지 66년, 2012년 합헌 선고 이후 7년만이다.

우리 사회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해왔다. 여성의 건강권은 보호받지 못했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낙태죄’의 법적인 처벌도 온전히 여성 개인의 몫으로 돌아갔다.

한때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산아제한정책으로 곳곳에 ‘낙태버스’가 운영되기도 했다.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은 여아에 대한 선택적 임신중절 관행을 양산했다. 인구가 감소하자 국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벌이며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로 공공화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여성은 임신과 출산, 양육을 감당해야 할 수단으로 전락했고, 음지로 숨어든 임신중단수술은 여성의 건강을 해치며 불법·원정·고비용 시술을 양산해 또 다른 고통을 낳았다. 이렇듯 여성의 몸은 국가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법과 정책이란 이름으로 이용되어 왔다.

강남역 여성혐오사건, 미투(#MeToo)로 이어진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갈망은 사회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여성의 몸에 자행되는 수많은 억압과 폭력을 끝내야 할 때다. 여성인권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며 모두가 함께하고 연대해야 할 과제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운동에 있어 역사적인 이번 판결로 여성들의 요구에 바르게 응답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마땅한 후속조치를,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 개정을 이행해야 한다. 임신, 출산, 양육은 여성만의 책임이라는 편견과 낙인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한다. 또한 현재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성교육의 내용을 생애과정에 걸친 건강권 혹은 재생산권의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피임방법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교육 체계와 이를 위한 의료시스템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한국YWCA는 한국 사회 여성인권 향상에 큰 도약을 이룬 현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물결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12일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이후의 과제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 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sup>1)2)</sup>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정(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입법자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를 받았다.

*자발적인 임신의 중단은 한반도에서 1912년 일제하 조선 형사령, 1948년 일제의용형법 이전에는 범죄화된 적이 없는 행위였다.<sup>3)</sup> 이러한 일제 강점기의 법적 연혁을 수계하여 1953년 형법 제정시에도 다소간의 논쟁 끝에 여전히 낙태죄는 포함되었다. 이제 66년만인 2019년에 마침내 여성의 힘으로 이 차별과 침해에 끝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여성은 여성 재생산·모성 건강에 있어서 지극히 평범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붙여진 낙인을 떨치며 합법적으로 안전한 임신중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위헌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부의 추가조치가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상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종전 선례(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를 변경하여, 낙태죄의 여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여성들은 그들의 삶을 옥죄던 잔혹하고 굴욕적인 족쇄 하나를 벗어던졌다.<sup>4)</sup>

헌법재판소의 종전 선례는, 낙태죄를 전통적인 권리의 충돌의 현상으로 이해하며 마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양자택일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게 하여 사회적 논쟁까지 좁혀 놓은 악영향을 끼쳤다. 실제 난임시술에서 의료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다태임신 이후 선택적 유산/낙태는 법적으로 규율하지 않는 모순, 발달 단계 상의 태아가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가지느냐의 의문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성의 선택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삶에서의 선택과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지원하는 사회가 태아에 대한 생명보호의무도 다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낙태죄의 존재를 억지로 정당화하려 한 '생명권' 프레이밍은 사실 어떤 생명도 보호하지 못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는 슬로건이 옹변하듯이 수십 년간 인구증가시대에는 경제개발과 '가족계획'이라는 미명 하에, 소수자에게는 '우생학적' 이유로, '저출산' 시대에는 국가적 이익을 거론하며 자의적으로 여성의 신체와 삶에 대한 결정권,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통제해 온 국가가 이제 와서 범죄화를 정당화하고 때로는 그 시행을 강화할 계획<sup>5)</sup>도 비치는 상황들이 많은 여성을 분노하게 했고 이것이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포괄적 성교육과 피임 접근권 확대, 낙인과 차별없는 재생산권 보장이 요청된다.

을 침해하는 공감대가 커져갔다. 낙태죄는 오랫동안 여성의 입을 막았지만 이제 이것에 굴하지 않고 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임신의 유지와 종결, 출산, 양육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 나누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낙태죄 위헌소원 사건을 준비하는 7명의 대리인단의 일원으로서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무게와 있을 수 있는 실패의 부담감을 분명히 느꼈다. 그래서 논리적 주장과 충분한 증거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변론과 준비를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거리에서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는 공동체적 확신을 볼수록, 늦었지만 때가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담회

이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들을 하여야 한다.<sup>6)</sup> 법령의 개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등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빠른 시기에, 어디서나,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즉각 승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임신중지 전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에비료인들도 수련 과정에서 안전한 임신중지 시술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고용 및 노동정책,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장애 정책, 이주 정책,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의 보장, 성적 건강과 재생산 권리 보장이 차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가슴 벅찬 여성인권의 승리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애써 돌아온 66년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범죄가 아닌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작업이 이루어져 여성인권의 출발점이 완성되기를 바란다.

1)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제 위 조항들에는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부연설명이 붙는다.  
3) 조선 시대에는 자낙태는 처벌하지 않았고 타낙태는 상해의 일종으로 처벌하였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논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2019. 4. 11.  
5) 대표적으로 2000년대 이후 수사와 기소의 경향과 2016년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상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기준 입법 소동 등이 그러하다.  
6)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입장>, 2019. 4. 12.

# 방사능오염으로부터 국민안전과 먹거리를 지켜야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연합회 탈핵생명위원회 위원

4월 11일 WTO 상소기구는 한·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해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지난 2013년 9월부터 취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습검출시 기타핵종 검사 등 조치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 WTO 승소의 의미

이번 승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에 대비한 식품 규제 조치가 정당하다는 점을 세계무역기구에서 인정받았다. 그동안 국내 일부 원자력공학자들은 물론 일본정부는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미국과학아카데미 <Biology effect of ionizing radiation> 보고서를 근거로 방사선으로 인한 암발생은 역치가 없어 안전한 기준치가 없고, 노출된 양에 비례해 위험이 증가한다는 게 정설이다. 방사선 노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뜻이다. 이번 판정은 기준치를 근거로 한 안전성 논란을 넘어, 합리적으로 방사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시켰다.

한국정부의 WTO 승소는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과거 정부에서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를 낳았다. 또 일본 수산물 WTO 분쟁 역시 박근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은 1심 패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2심으로 진행되는 WTO 분쟁에서 1심 결과를 뒤집은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절망적이었지만, 예상을 깨고 승소 결과를 얻었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음을 결과가 보여주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자 활동했던 단체들과 시민들의 노력도 승소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이들은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오염 문제를 알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했다. 지난 정부 시절 '방사능 괴담'을 유포한다는 말도 안되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들과 단체들은 모금을 통해 핵종분석기를 마련하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설립해 전문적인 방사능측정과 감시운동을 벌여나갔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운동 등을 통해 아이들의 급식안전도 챙겼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방사능 안전을 개선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었다.

## 1심에서는 왜 패소했나?

WTO 승소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됐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1심 패소와 2심 승소의 과정을 돌아보며 문제점과 성과를 잘 평가해서 향후 대응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다면 1심에서는 왜 패소했을까.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는 한국만의 특수한 조치는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51개국에서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및 제한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이 한국정부만 제소했다는 점도 납득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초기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다.

2013년 9월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강화된 이후 일본정부는 끊임없이 이 문제에 항의하며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식품의약품안전

처는 2014년에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꾸려 일본 현지조사도 두 차례 다녀왔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민간조사위원회가 종합적인 방사능 오염 조사 활동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한 이후 들연 조사위원회는 활동을 중단한다. 알려진 바로는 보고서도 작성된 게 없으며, 불과 몇 건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만 했을 뿐 해저토나 심층수 조사는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 일본산 농수산물 안전한가?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일본 정부 자료를 봐도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8년 일본 전역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 171,925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에서 농산물은 18.1%, 수산물은 7.0%, 야생육은 44.6%, 기타 가공식품은 2.5%에서 방사성물질 세습이 검출된 결과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분석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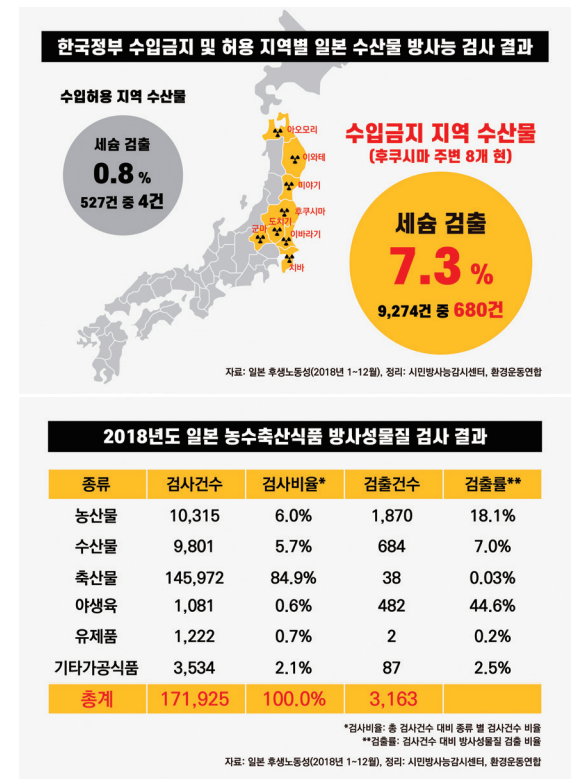
이 가운데서 멧돼지에서 기준치(100Bq/kg) 52배인 5,200Bq/kg, 수산물은 산천에서 140Bq/kg, 농산물은 두릅에서 780Bq/kg, 고사리에서 430Bq/kg까지 높게 세습이 검출됐다.

수산물만 보면 방사성물질 검출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담수어는 물론 도다리, 농어, 홍어, 가자미, 까나리 등 해수어도 포함 됐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산과 바다, 강과 호수, 토양 등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각하고 그로인해 동식물들 역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역(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수산물에서 세습 검출률이 7.3%로 나머지 지역 0.8% 보다 9.1배 높았다. 이는 후쿠시마 주변 8개 지역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도가 높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안전을 위해 남은 과제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이제 거의 수습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 아직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는 제거하지 못한 상태다. 방사성물질 세습만 해도 물리적인 독성이 사라지는 기간이 300년이 걸린다. 그 외에도 플루토늄 같은 물질은 10만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만큼 오랜 시간 후쿠시마와 일본은 방사능오염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도 사고가 발생한 지 33년이지만, 여전히 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후쿠시마도 완전한 복구까지는 기약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정부는 이번 WTO 승소를 계기로 더욱 철저히 방사능오염으로부터 국민안전과 먹거리를 지키겠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내에 쌓여있는 방사성오염수 111만톤 해양방출 계획에도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정부는 가장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방사성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한다. 주변국들과 협력해 오염수 해양방출을 막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 전경

임주헌

4.16 재단 사무처장

**다시, 4월 그리고 봄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전시회를 준비하고 돌아오는 길, 벚꽃이 아름답게 만개한 구기동 거리를 바라보며 멍하니 감탄하고 있는 내 옆에서 4.16 희생자 어머니가 혼잣말을 한다. “빨리 꽃이 졌으면 좋겠다” 순간 “아차” 했다. 4.16 희생자 어머니들은 아직도 4월의 활짝 핀 꽃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기만 한 꽃이 4.16 유가족들에게는 아직도 아픔을 떠올리는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잠시 잊었다.

2014년 4월 그날 이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사는 세상은 달라졌다. 이전에 보아왔던 아름다운 꽃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고, 평범했던 이웃과의 일상도 이전의 일상도 아니었다. 4.16 유가족들은 아이를 잃은 슬픔에 위로 받아야 할 시간, 국가가 외면한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나와 외쳐야 했다.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팽목항에서 국회로 그리고 광화문으로 전국을 다

니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힘든 나날들을 살아내야 했다. 그리고 5년,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국민춧볼의 힘으로 박근혜가 퇴진했고,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세월호가 인양되어 목포신항에 거치되었고, 조사를 위한 선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선체조사위원회는 미수습자 수색작업을 진행하여 미수습자 4명의 유해를 찾아냈다. 그리고 지난해 안산에 있던 정부합동분향소가 문을 닫았다. 힘든 과정이 지나고,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그렇게 세월호 참사 후 5년의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세월호 참사는 서서히 잊혀졌고,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하며, 그날의 아픔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평화롭게 흐르는 시간이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 사건의 원인을 1년 넘게 조사해온 선체조사위원회는 지난 해 8월 최종 침몰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선체 내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 행진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 추모 묵념

부 결합에 의한 침몰설(내인설)과 외력에 의한 침몰설(열린 안) 두 개의 안을 내놓고 종료하고 말았다.

그리고 기억식을 한 달 앞둔 지난 4월 14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이유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인 폐쇄회로(CCTV) 영상저장 녹화장치(DVR)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 구성을 요구하며 청와대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후, 제야당의 차명진 전 국회의원과 정진석 국회의원이 연달아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모욕하는 잔인한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진상규명을 위해 달려온 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우리를 아프게 했던 현실은 변한 것이 없었다. 지금도 4.16 그날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자들은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음해하는 세력도 여전히 건재하다.

**우리의 무심함이 대형 참사 만들어**

한국사회는 그동안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과 같은 대형 참사가 많았다. 그러나 몇 년의 시간 속에서 참사의 피해공간은 사라졌고, 참사의 기억도 잊혀졌다. 참사의 피해자들만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무심함이 한국사회 대형 참사를 계속 만들어 냈고, 현재의 세월호 참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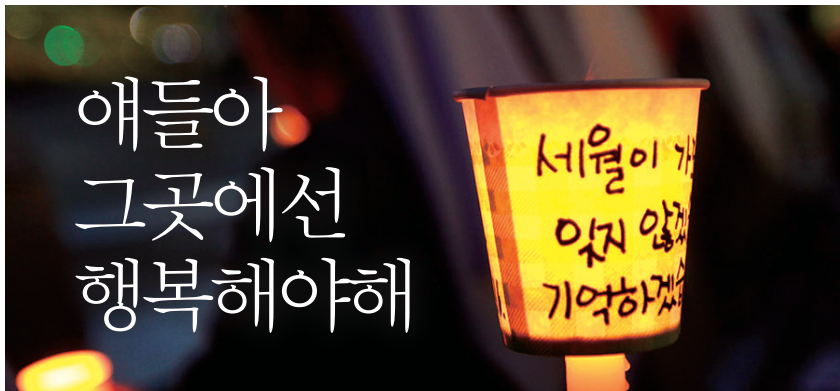
우리는 4.16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고 말한다. 4월 16일 구할 수 있는 304명의 희생자가 국가의 부재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힘없이 바라보아야만 했던 그날, 우리는 함께 슬퍼하며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겠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 세월호 참사를 통해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행동한 것은 무엇일까?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일상이 찾아왔고, 또 우리는 잊고 있는 건 아닐까?

**더 이상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 5년, 지금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 날의 약속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이에게는 그 기억이 생명이 존중 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희망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구할 수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가의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다.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방식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말한다. 그동안 그 많은 참사에 관심 갖지 않고, 무심하게 지나간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그날을 잊지 못한다. '세월호 참사'는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다. 이번 청년토크는 세월호 5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상당수를 차지한 학생들과 같은 또래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담아냈다. 이름은 꽃이름으로 심는다.

**그날 기억나?**

**개나리**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 학교에 있었는데 뉴스에서 배가 침몰했다는 거야. 난 큰 사고가 아니겠거니 생각했어.

**유채꽃** 친구들이랑 뉴스 보면서 엉엉 울었었어.

**벚꽃** 전원구조라고 했을 때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오보라는 걸 알고 너무 충격이었어.

**장미**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나랑 동갑이 니깐 전부 내 친구 같았어.

**개나리**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아닐까 싶어.

**유채꽃** 만약 그날 참사가 없었더라면 지금쯤 단원과 친구들은 나처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있겠지?

**벚꽃** 나만 행복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개나리** 우린 5년 전 그날에 전부 따로 있었지만 느꼈던 감정은 비슷한 거 같아.

**세월호를 바라보는 두 가지 눈**

**장미** 여기 있는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비슷한 감정으로 기억하지만 이 세상에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아.

**유채꽃** 우리 부모님은 뉴스에 세월호 관련 내용이 나오

면 지긋지긋하대.

**장미** 나도 주변 어른들이 보상도 다 받았으면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소름 돋았어.

**개나리** 내가 세월호 피해자였어도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말했을까?

**장미** 나는 5년 전 그날 정부가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대로 믿었어.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했고.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잖아.

**개나리** 단식투쟁하는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폭식투쟁을 하는 일베(일간베스트)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

**유채꽃** 맞아. 나는 이 사회에 비상식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환멸까지 느꼈어.

**벚꽃** 함께 아파해야하고 슬퍼하기에도 모자란 참사가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변했을까?

**개나리** 국민들의 기억을 왜곡하려는 수법인거지. 언론을 통해 가짜뉴스를 전하고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있잖아.

**이기심이 낳은 참사**

**개나리** 한국 사회는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

**장미**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누구에게든 다칠 수 있는 일들이야.

**벚꽃** 그날 세월호를 탔던 '그들'도 타지 않았던 '우리'도, 결국 모두 그 사건의 피해자야.

**유채꽃** 어쩌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개인의 이기심이 특히나 권력의 자리에 있던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참사로 이어진거야.

**장미** 맞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방송을 하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 기억난다.

**유채꽃**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 경찰, 언론, 일반 시민까지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벚꽃** 매년 이맘때면 여기저기서 막말하는 사람들도 나오잖아.

**개나리** 그런 사람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도 2차, 3차 피해자가 생기는거야.

**장미** 사실 한국사회에는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등 수많은 사건이 있었어. 나는 이 모든 게 이윤을 위해 약자를 희생시킨 사회적 참사라고 생각해.

**유채꽃** 나도 공감해. 노란 리본은 더 이상 세월호에만 국한되지 않아.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 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모두를 포함해.

**개나리** 실제로 각자 다른 사회적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연대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기도 한대.

**벚꽃** 모든 사건에는 연대가 중요해. 피해자의 유족 뿐 아니라 우리도 동참해야 돼.

**안전하게 살고 싶어**

**벚꽃** 안전은 인간이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욕구야. 근데 나는 한국에 살면서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장미**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치안은 좋지만 재난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해.

**유채꽃** 경제 성장만 지나치게 강조하니까 이런 참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벚꽃** 안전 앞에서는 돈도 나이도 성별도 아무런 소용이



목포신항에 서 있는 세월호 선체 <출처:연합뉴스>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해.

**장미**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지.

**벚꽃** 이 사회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안전도 필요 없고 생명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개나리** 더 이상 이런 재난이 반복되어선 안 돼.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법도 개정해야 하고 특별법도 만들어야 돼.

**유채꽃** 세월호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기회일 수도 있어.

**잊지 않을게**

**장미** 아직도 길가다보면 곳곳에서 노란리본이 보이는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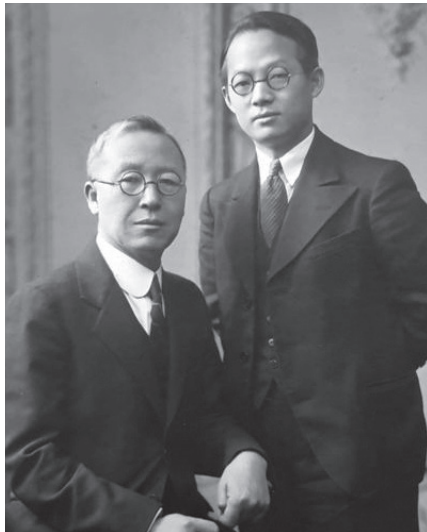
**개나리** 맞아. 열쇠고리, 뱃지,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각자의 방법으로 기억하고 있어.

**유채꽃** 얼마 전에 영화 '생일'을 보면서 잠시 잊고 있던 나를 발견했어.

**벚꽃** 삶에 치여서 잊을 수도 있는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장미** 난 항상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노란리본을 달아 놓고 그날을 기억해.

**개나리**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야. 분명 한 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야.



이승만과 서영해의 한때 가까웠던 모습. 파리 시절에 찍은 것이다. 산지니 제공

## 우리가 잘 몰랐던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김성혜  
재불 번역가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부산박물관에서 특별전<서영해, 파리의 꼬레앙, 유럽을 깨우다>을 개최했다. 지난 2월, 독립운동가 서영해가 1929년 프랑스에서 출간한 역사소설 <어느 한국인의 삶> 한국어 번역본이 90년 만에 처음으로 출간되었다(역사공간, 2019.2). “미국에 이승만이 있다면 유럽에는 서영해”가 있다고 할 정도로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양대 외교 축이었지만, 안타깝게 역사에 오랫동안 묻혀 있었다. 외교관이자 언론인이자 소설가였던 서영해는 일생을 조선 독립운동에 바쳤고 서방 세계에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힘썼다.

올해는 3.1 독립만세 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알려져 있지만,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동했던 서영해 선생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이가 없다.

파리에서 50년 가까이 살고 있는 필자도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서재에서 서영해 선생의 저서 <어느 한국인의 삶>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출판된 지 이미 90년이 지난 이 책을 우리 글로 옮긴 것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독립운동의 진실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1902년생 서영해는 17세 때 3.1운동에 참가한 뒤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1920년 19세 때 프랑스로 건너가 임시정부 파리 통신원과 주불 대표위원 등 유럽지역 외교활동을 담당했다.

프랑스어를 하나도 모른 채 프랑스에 간 그는 초, 중, 고 11년 과정을 6년 만에 마쳤는데, 수업시간에 조선인을 미개하다고 폄하하는 교사에게 대들어 퇴학당할 위기에 처하자, 교장 선생을 비롯한 전 교사 앞에서 조선이 얼마나 유

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인지 연설을 하여 모든 선생들을 감동시키고 조선을 폄하했던 교사의 사과를 이끌어낸 일화가 있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알리기 위해 기사를 꿈꾸던 그는 소르본대학 언론학부에서 수학한 후, 자신의 거처인 허름한 호텔방에 고려통신사를 세우고 글을 써서 프랑스의 신문이나 잡지에 투고했다.

그리고 프랑스에 온 지 9년만인 1929년 프랑스어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유럽에 알리는 역사소설 <어느 한국인의 삶 (Autour d'une vie Coreene)>을 출간했다.

한국의 오랜 역사 문화와 독립운동을 다룬 이 책은 프랑스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당시만 해도 프랑스인들의 한국관은 일본이 왜곡한 내용으로 고정되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중국의 오랜 속방이던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비로소 문명을 접할 수 있었던 나라로 여기는 정도였다.

이 책에서는 4천2백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이 고유한 문화를 발달시켜오다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 불행하게도 나라를 잃었으나, 한국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전개한 독립운동을 담아내고 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유독 많은 프랑스인들에게 이 책은 소설이 아닌 사실로 다가갔고, 한국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진실을 전달할 수 있었다.

“제국주의 열강은 약소민족과 국가의 불행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분노와 절망을 넘어 걸속하면서 그럴수록 더 한마음 한뜻으로 독립운동의 깃발을 힘차게 날렸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등 한국의 주요 독립운동을 기술하고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의 프랑스어판 전문을 실은 이 책은 출간 직후 1년간 5판을 찍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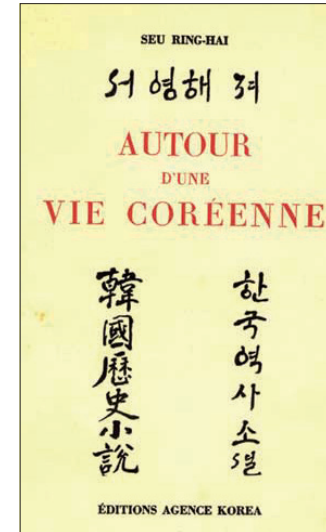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페인 신문에도 소개되면서 유럽 전역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 독립운동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또한 이 책은 당시 프랑스 대통령 폴 두메르에게 헌정되었고, 국제연맹 사무총장, 프랑스·체코 대통령, 파리 주재 중국 총영사 등, 서영해 선생이 유럽 각계 지도층 인사를 만날 때마다 이 책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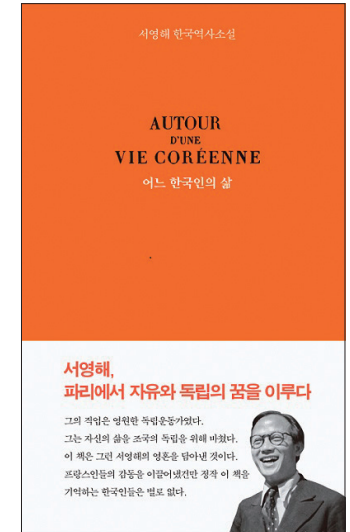
프랑스인 독자를 상대로 쓰인 이 책은 문장이나 어휘, 표현 등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 프랑스어를 수십 년 배우고 익힌 나였지만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더 가슴 뭉클하게 다가온 것은 이 책에서 끝없이 묻어오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이었다.

그의 꿈은 오로지 조국의 독립이었고 파리에 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의 독립운동은 여러 면에서 남달랐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혼자서 몸으로 종횡무진 유럽 무대를 누볐다.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기록하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 그는 고군분투하면서 혼신을 불살랐다.

그는 학업을 마친 뒤 20여 년간을 기자로서, 작가로서, 임시정부 특파원으로서, 국제정세 전문가로서, 인권평화운동가로서 괄목할 자취를 남겼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서영해가 1929년 파리서 펴낸 '어느 한국인의 삶' 연합뉴스 제공



2019년 한국어로 번역된 '어느 한국인의 삶'

한국 독립운동으로 귀결되었다. 그의 직업은 영원한 독립 운동가였다.

1933년 이승만 당시 임시정부 전권대사가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연맹 본부에 대한독립청원서를 제출할 때는 그가 함께 활동하여, 임시정부로부터 “미국에 이승만이 있다면, 유럽에는 서영해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45년 5월 김구 임정 주석이 드골 프랑스 임시정부 주석에게 독일 항복 축하 전문을 보내고 드골의 답신을 받을 때도 중심적 역할을 했다.

서영해는 자신의 삶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바쳤다. 그가 쓴 책 <어느 한국인의 삶>은 그런 서영해의 영혼을 담아낸 것이다. 프랑스인들의 감동을 이끌어냈건만 정작 이 책에 대해 아는 한국인의 별로 없다.

필자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지만, 90년 전 프랑스에서 선풍을 일으켰던 이 책을 뒤늦게라도 세상에 다시 불러내고 싶었다.

필자는 이 책을 서영해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우리 글로 옮겼다. 우리가 진 빛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 마음에 서이다. WCA



1922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로 설립된 한국YWCA연합회가 올해로 97년째를 맞이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창립 97주년을 기념하여, 기념예배를 드리고 YWCA 역사관 '이제'를 개관했다.


‘한국YWCA,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4월 25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한국YWCA연합회 창립 97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안수경 목사(연합회 실행위원) 집례로 드려진 예배에 연합회 회장단, 전국 YWCA 회장단, 연합회 실무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한영수 연합회 회장은 “YWCA 역사에 개입하셔서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원영희 연합회 제1부회장은 “YWCA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할 것”을 고백했다.

이종임 연합회 제2부회장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든 길이어도 하나님 나라를 향

한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했다. 김명희 목사(연합회 실행위원)의 축도가 있었다.

특히 이날 YWCA 역사관 ‘이제’를 개관했다. 한국YWCA는 유·무형의 ‘YWCA 100주년 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YWCA 역사관을 운영한다. 한국YWCA연합회 회관 3층에 위치한 ‘이제’는 YWCA가 이제는 97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역할을 되새기고 새로운 YWCA 운동을 꿈꾸기 위해 기획된 역사관이다.

20여 평의 공간에 기도실과 회의실도 마련되어 있다. ‘2019 YWCA 전국회장단협의회’에 참석한 전국의 YWCA 회장단이 ‘이제’의 처음 문을 열었다. 

역사관 '이제' 설치 그 이후

YWCA 역사관

# 이제

## 살아있는 YWCA의 시간들 가치가 담겨있는 역사관

홍현정

연합회 정책기획국 부장

한국YWCA 역사관 '이제'가 YWCA연합회 회관 3층에 문을 열었다.

‘YWCA는 사람입니다’라는 슬로건처럼, 한국사회에서 정의, 평화, 생명운동을 펼치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선배들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역사가 되어 오늘의 우리에게 전달되니 더 큰 감동이 된다.

원래 수확학원이었던 20여 평 공간을 역사관과 기도실, 회의실로 조성했기에 '이제'의 전시 규모는 다른 '역사관'들에 비해 작다. 그런데 '이제'를 찾은 와이 활동가들의 표정과 기쁨은 그 어느 전시장에서 봤던 모습보다 크고 생생했다. YWCA와 함께했던 기간이 짧든, 길든 역사의 현장 속에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이어져서일까.

한국YWCA는 일제 탄압이 거센 시기에 여성들의 자발적인 독립운동으로 시작했다. 이후 계몽운동을 통해 민족의식과 독립의식을 고취시켰고, 조혼 및 공창 폐지운동, 혼인신고운동 등 여성인권향상을 위해서도 앞장서게 된다.

전시 자료를 정리하면서 놀란 사실은, 한국YWCA가 국내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고 국제적인

자원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한 예로 1950년대에 혼인신고의 중요성을 만화로 만들고 영어로 번역해서 국제 사회에 우리의 운동을 소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 운동은 여성인식을 새롭게 한 사례로 세계YWCA와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보고되었다.

또한, 한국YWCA 운동의 전문성에 감동했다. 특히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한 YWCA 직업훈련의 역사는 철저한 연구와 실행을 통해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여성인권향상이라는 사회변화를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운동 역사이다.

“한국YWCA는 1922년에 창설된 기독교여성운동체입니다.” 그동안 한국YWCA를 소개하면서 했던 말이다. 역사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배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YWCA역사관 '이제'는 97년의 YWCA 운동 역사 중 이번에는 여성운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역사 그 자체로 공간이 팍 찬 느낌이다. 지금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한국YWCA 역사가 다음 세대에 이런 감동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YWCA와 함께 하는 동안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사용해야겠다.



## 대상 조형 한국여성재단 고문, 젊은지도자상 장혜영 다큐멘터리 감독



박진희 한국씨티은행장, 장혜영 감독, 조형 고문, 한영수 한국YWCA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년 한국여성지도자상은 한국 여성주의 리더십 육성과 여성인재 양성에 기여한 조형 한국여성재단 고문이 대상,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시민운동 전개로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장혜영 다큐멘터리 감독이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한국YWCA와 한국씨티은행은 4월 16일(화)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제17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전국 52개 지역YWCA 회장단을 비롯한 한국YWCA연합회 임원, 실행위원, 활동가와 여성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장혜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의 음악감독을 맡은 '유인서&밴드'의 축하공연이 있었으며, 장혜영 감독의 여동생이자 영화 주인공인 장혜정 님의 즉석 춤공연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 한국 여성주의 리더십 육성과 여성인재 양성에 기여한 조형 고문

대상을 수상한 조형 한국여성재단 고문은 사회학자이자 여성학자로서 여성 리더십을 양성하고, 여성학을 실천적 학문으로 발전시켜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여성주의 관점과 미래 지향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장을 여는 데 기여했다. 또한 1996년부터 10년 동안 (사)어린이어깨동무 공동대표로서 대북지원사업 성장과 학교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는 등 남북한 평화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여성임원 30%시대와 100세대 초고령사회를 미래 사회로 디자인하는 등 여성주의와 젠더관점으로 새로운 장을 열고 토대를 마련하는 데 공헌했다. 현재 한국여성재단 고문으로 지속적으로 여성 인권과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시민운동 전개로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는 장혜영 감독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한 장혜영 감독은 2011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재학시 무한경쟁의 도구가 된 대학 현실을 질타하며 공개 자퇴한 후, 유튜브 채널 '생각많은 둘째언니'를 운영하며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와 빈곤층 문제, 시민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해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였다.

2017년, 18년 동안 장애인시설에서 살아온 발달장애인 동생을 데리고나와 함께 살며 그 좌충우돌 '탈시설 생존기'

를 <어른이 되면>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론칭하여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었다. 2018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장편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을 제작하고, 같은 이름의 책을 출간했다.

현재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 동영상시리즈를 기획·제작하는 등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로 활동 영역을 점차 확장해가고 있다. 시민참여와 소통의 민주주의를 위한 담론적, 실천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주목할 만한 차세대 지도자로 평가되었다. YWCA

### 제17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소감



## 여성운동, 정의로운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길

조 형  
한국여성재단 고문

YWCA가 주시는 상 소식을 들었을 때, 저 혼자이룬 것은 하나도 없기에 받아도 되는 상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배운 것은, 성별이나 계층, 연령, 인종, 민족, 국가 등 그런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정의로운 평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폭력주의까지 포함하는 평화, 셋째로는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배려와 화합이 여성주의 페미니즘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생각하는 여성주의 보다 포괄적인 여러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영예를 우리 벗들과 함께 나누려고 사양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1970~80년대에 한국 여성사에 기록할만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는 학문분야로서 여성학이 태동했습니다. 이 화여대를 필두로 여성학과가 만들어졌고, 여성학회가 창립했습니다. 둘째로 1980년대에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주의에 도전하여 양성평등 운동을 펼치기 위한 여성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양성평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는 데까지 여성단체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여성 개인의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나 여성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가 성평등지수는 세계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사회가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에 큰 걸림돌이 남아있습니다. 첫째는 남성에 의한 여성폭력 심화입니다.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경찰 및 주요 기관에 직장상사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발발한 미투 현상이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법부에서 판결문에 성인지감수성을 명시하고, 폭력을 피해자 시선에서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사법적인 변화와 감사가 성인지감수성을 사회에 확산시켰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성폭력이 얼마나 없어질지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는 여성들을 상층부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유리천장'입니다. 변화를 위한 여성비율 임계치가 30퍼센트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사회 '유리천장'은 견고합니다. 유리천장을 깨뜨리는 것은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부터 운영중인 민간 시민사회 포럼인 미래포럼에서는 2014년부터 모든 공공조직은 정부의 책임 하에, 민간 기업은 자

발성에 의해서 임원진과 이사진에 여성을 다수 배정하도록 하는 '30퍼센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 근처에 있는 여성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지켜보며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현실적 과제입니다. 앞서 지적한 여성의제들은 가시적으로 안정된 계층의 여성문제에 집중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폭력에 대한 대응, 경제적 자립, 기본적인 인권차원에서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 탈북자 등 구조적인 마이너리티 집단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들의 관심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여성운동은 양성평등을 위해 법이나 정책을 만들고 태동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여성들이 원하는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 국가개입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간에 일관성 있는 변화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정파를 초월한 시민집단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우리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상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 누구나 민주주의가 약속하는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장혜영  
다큐멘터리 감독

저와 같은 힘겨운 청년세대가 있지만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젊은지도자상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지도자란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리더는 변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가 여전히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간직한 리더들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도전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별, 국적, 장애유무, 연령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하고, 사람들은 탐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속임수가 넘쳐나고 있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불공정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라는 시간동안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돌이킬 수 없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슬퍼하고 애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다. 그런 사실을 직면하면서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꿈꾸며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지 우리에게 선택이 남았다는 것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규명을 추구하고, 또 자신의 자리에서 이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세상의 절반을 채우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회적 약자로서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만들어내 지금의 오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어져서 열린 마음의 힘으로 더 평등한 세상, 누구나 민주주의가 약속하는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자신의 자리에서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여성리더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또 우리 모두가 시민으로서 진실을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재수사를 촉구합니다.

모든 이들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사회에서 자유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과 조례제정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 평화포럼으로 순례여정 시작하다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태백편' 2019년도 여정을 '제1차 길 위의 평화포럼'으로 시작했다. 2019 '길 위의 평화포럼'은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준비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다섯 차례 진행 후 마지막 대포럼에서 태백산을 등정한다.


편집실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한국 YWCA 창립 95주년부터 100주년까지 매년 한라산(2017), 지리산(2018), 태백산(2019), 설악산(2020), 금강산(2021), 백두산(2022)을 차례로 오르는 YWCA 평화운동 프로젝트다.

올해 포럼은 '국제정치와 한반도 정세를 통한 남북 관계 이해'를 주제로,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과 주변국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 평화운동을 양성하고자 한다.

4월 18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린 '제1차 길 위의 평화포럼'에는 연합회 위원, 회원 YWCA 참가자, 북한이탈주민, 청년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성렬 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북미회담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보장받고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려는 북한은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서 불발 이후 김 위원장의 선택이 중요해졌음을 말하며, 동시에 한국의 중재자 역할과 당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과정'으로서의 평화와 통일을 강조하며 부문별 공동위원회, 남북집행위원회를 거쳐 통일정부로 가는 '협의체적 공동정부 모델'을 제시했다.

앞으로 길 위의 평화포럼은 '북한의 정치 및 권력 관계'(5월), '북한의 청년의 생활과 인식'(6월), '북한 근대사 속의 기독교'(7월), '신한반도 경제공동체와 시민사회 과제'(9월)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

평화포럼단 참가 소감

##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김재신**  
서울YWCA 이사

나는 오랫동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나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과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었고 그런 신앙에 나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나의 관심은 사회와 세상으로 확장되었다. 교회와 세상의 다리역할을 하고 있는 YWCA에서 자원활동가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길 위의 평화포럼단'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2018년 평화포럼에서 던진 '북한과의 평화 그리고 통일'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면하고 부딪혀야 할 현실이었다. 또한 나에게 한국 근현대 역사와 현정세에 대한 지식의 도전과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포럼에 참여한 탈북민들과의 교류는 편견과 오해로 점철된 북한에 대한 사고의 틀을 깨는 만남이 되었다. 작년에 포럼단 참여의 큰 유익이 있었기에 올해도 포럼단이

되었다. 2018년 이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한국교회가 세간의 비판을 받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 인류 역사의 나아갈 바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

1988년 선포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기억하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와 통일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나의 신앙의 일부임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다. 또한 남북 정치 현안에서 지속적인 민간 차원의 교류와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계속되는 YWCA 평화운동 여정에 동참하고자 한다.

한민족 여성 백두대간에 올라 통일을 외치다!



## 길 위의 평화포럼에서 통일된 한반도를 그리다

**김경민**  
청주YWCA 부장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노래를 습관처럼 불렀다. 나에게 통일은 그냥 노래가사일 뿐이었다. 북한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입으로 계속 부르던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을 상상해본 적도 없다. 하지만 '길 위의 평화포럼'에 참여하면서 통일의 실제 모습을 그려보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했다. 강의를 통해 한반도

지금의 상황과 회담 의미를 알게 되었다. 토론에서는 새터민,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자유롭게 통일된 한반도를 그려볼 수 있었다. 참가자 모두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경청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해 민간에서의 소통과 협력, 북한에 대해 바로 알기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평화포럼단이 씨앗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YWCA 평화통일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화마가 지나간 속초 동해 강릉 지역 전국 회원YWCA의 정성 전달해

화마가 순식간에 강원도 고성 지역을 지나 속초, 동해까지 휩쓸 것은 식목일 전날인 4월 4일 밤이었다. 3일 저녁부터 내린 강풍주의보가 그밤엔 초속 30미터에 이르는 태풍급의 강풍으로 변해 불바람이 분 것이었다. 바람이 산불의 초기 진화가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방대한 지역으로 확산시켰다. 밤 9시 30분경 산불은 북동향의 강풍으로 인해 고성군 시내로 확산되고 인근의 속초시로 번져 갔다. 소나무 숲방울 기름은 햇불이 되어 바람 부는 대로, 터져서 날리는 대로 이제 막 싱그럽게 물오르는 연두빛 산색을 잿빛으로 변하게 했다.

속초 영랑호 앞에 자리한 속초YWCA는 그야말로 밤을 지새며 물호수로 불길을 차단했다. 고성군민과 속초시민들은 주변의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등을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사수했다. 가장 피해가 큰 속초시 장천마을의 십여 가구는 영랑호 건너에서 불어온 바람에 불꽃이 튀어 마을 전체가 두 가구를 제외하고는 전소되기도 했다. 장천마을엔 노인가구가 주로 사시는데 저녁 8시경에 불이 번져 일찍 잠이 드시는 어르신들을 마을회관으로 대피시키는 데에도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한다.

17일 낮에 연합회 임원단과 북부지역 조철숙위원장과 속초YWCA

회장님과 속초YWCA이사위원들과 들른 장천 마을회관에는 간밤의 화마로 생활터전과 살 집을 잃은 어르신 20여 분이 속초지역 교회협의회가 지원하는 식사와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날의 악몽을 떨쳐내시면서도 울여름 가을 논농사, 밭농사 걱정을 하시고 계셨다.

이번 산불의 주민 피해가 가장 큰 속초시의 김철수 시장은 "재해민들의 주거지 마련과 긴급 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 회원YWCA의 정성이 담긴 성금을 직접 들고 재해지역을 찾아준 연합회 임원단과 속초YWCA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지원단은 동해 시청을 방문해 성금을 전했다. 속초시는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지만, 동해시의 경우 4일 밤 11시 30분 넘어 동해시 도심 내부로 불던 바람이 망상해수욕장 바닷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해안을 따라 오토캠핑장과 한옥마을로 불이 번져 재산상의 피해가 컸다.

4월 4일 강원도 인제군을 시작해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지역에 잇따라 발생한 산불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전국 52개 회원YWCA와 한국YWCA연합회에서는 캠페인과 긴급 모금을 5월 1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속초YWCA에 성금과 서울YWCA의 후원 물품 전달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성금 전달



동해시청 방문 (왼쪽 김중문 부시장)



장천리마을의 피해 현장



임진아

남원YWCA 간사

‘2019 Y-틴 담당 실무활동가 워크숍’이 4월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부산YWCA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는 Y-틴 담당 실무활동가다. YWCA 청소년운동을 이끌고 있는 전국의 동료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청소년 담당 실무활동가 25명을 부산으로 모이게 했다. ‘YWCA 청소년운동’과 ‘역사’를 주제로 연 이번 워크숍은 연합회를 주축으로 지역 활동가들이 함께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형 워크숍이었다. 소통워크숍, 부산 역사 탐방, 특강(YWCA 청소년운동 이해, 탈핵), 지역별 모임 시간을 가졌다.

점심식사와 장소를 부산YWCA에서 지원해주었다. ‘청소년, 정의, 평화, 우리’를 주제로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Y-틴 실무활동가가 연대하여 이 운동을 이끌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만든 공동기도문으로 워크숍을 시작했다.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된다**

Y-틴 활동가는 홍보, 회원 확보, 프로그램 기획 등 여러 고

민을 갖고 있다. 나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해야 Y-틴 청소년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까?”였는데, 김수진 연합회 간사의 워크숍에서 실마리를 풀 수 있었다.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며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청소년 진로’를 주제로 한 Y-틴 중점운동과 운영에 대한 고민도 깊었는데, 특강과 지역별 모임을 통해 고민 일부를 해결할 수 있었다.

천유란 연합회 간사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재에 대한 특강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 단체로서 YWCA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민혜진 안산YWCA 팀장, 오대근 대전YWCA 간사 특강은 ‘꿀팁 대방출’과 같은 시간이었다. 다른 청소년 단체와 YWCA의 차별성, 운동방식, 실무활동가 역할, 동아리 홍보 방법 등 Y-틴 실무활동가로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공유했다. Y-틴 운동에 대해 고민은 나누고, 꿈을 키우며 희망과 대안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으로, YWCA도 독립운동과 같은 결을 지니고 있다. Y-틴 실무활동가는 4조로 나누어 부산의 6.25의 역사를 지닌 흰여울길, 감천문화마을, 임시수도기념관, 보수동 책방 골목에 위치한 중부교회 등 부산의 다양한 역사적인 장소를 탐방했다.

흰여울마을은 한국전쟁이후 만들어진 피난민 역사의 아픔과 시간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감천문화마을은 현재 연간 18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대표 관광 명소이지만 이 곳 역시 6.25 피난민의 힘겨운 삶의 터전으로 시작되었다. 임시수도기념관은 6.25전쟁이 일어나 부산이 중앙정부의 임시수도가 되어 이승만 대통령이 집무하는 관저가 되었다. 끝으로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중부교회를 방문했다. 6.25 전쟁 후,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성경말씀에 기초해 피난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것을 교회의 주된 사명으로 알고 행했던 곳이다.

역사적인 장소를 견학 후, 남북 분단 현실의 아픔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이번 워크숍 역사탐방을 통해 나는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이 통일의 여정에 우리 Y-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북한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노력과 기

도를 할 수 있을까?

**청소년과 탈핵운동**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탈핵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강의를 위해 부산YWCA 김솔지 간사가 함께했다. 최근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판결 등 사회적으로 원전 위험성을 조금은 알린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여전히 핵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만나고 있는 우리들부터 핵에 대한 이해, 탈핵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을 느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핵과 원전 위험성을 알릴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연대를 통해 해결의 문이 열린다**

1박 2일 동안 우리 안에 오갔던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였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YWCA 목적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일까?라는 질문을 늘 하게 되는데, 이번 워크숍에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 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간사 연대체를 통해 서로가 해결의 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청소년을 무척 사랑 하는 담당 실무활동가들, 청소년들을 응원해주는 YWCA가 있다는 확신을 통해 희망을 발견했다.

**워크숍 참가 미니인터뷰**



김민선  
청주YWCA 간사

‘워크숍’이라 부르고 ‘힐링’이라고 읽다. 올 3월부터 YWCA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막막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 혼자 고민했던 부분을 다같이 공유하며 힘을 얻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전과는 다르게 접근하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같이 고민할 동료들이 생겨 기쁘다.



신재화  
안양YWCA 간사

다양한 지역의 활동가들을 보며 청소년 운동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특히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며 Y-틴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서로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외로운 운동을 하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신임간사들에게는 든든함, 중견간사들에게는 새로운 에너지를 한껏 받은 것 같다.

# 잊지 않겠습니다

## 영화 <생일>

**백보람**  
연합회 지역운동국 간사



**영화 <생일>**

이종언 감독 / 2019.04.03 개봉 / 120분

이제 사월은  
내게 옛날의 사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도종환, 화인(火印)

2014년 4월, 지금도 믿기지 않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그 당시를 생생히 기억한다. 그 날은 부활절을 며칠 앞둔 고난주간 중 하루였고, 당시 학생이었던 나는 교회에서 고난주간 기도회에 참석한 뒤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당에 항상 켜져 있는 TV 뉴스에서 배가 가라앉았다는 보도가 들렸다. 보도를 들으며,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그 뉴스도 그런 사건들 중 하나일 것이고, 아마 조금 있으면 어떻게 구조가 되어 마무리가 됐는지 알려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 일상의 짧은 기억이 앞으로 절대 잊어버리지 못할 아픈 기억이 될 줄은 몰랐다.

5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 참사를 다룬 여러 영화들이 개봉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세월호 참사를 영화관의 커다란 스크린으로 마주할 자신이 없어 주저하는 사람이고, 영화 <생일>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보았다. 영화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시의 시점에서 자세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하기보다는, 참사 이후 남은 사람들에게 닥친 상황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담담한 시선으로 보여준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 수호를 잃은 가족들, 그의 친구들과 살아남은 학생들, 유가족들, 안산 시민들까지 세월호 참사를 알고 기억하며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2014년 4월에 머물러있는 기억을 지나 현재를 살고 앞으로 그 기억을 가지고 갈 우리 모두를 생각하게 한다.

영화는 수호라는 희생 학생을 중심으로 한 주변 인물들의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들이 결코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장면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임을 받아들이게 한다.

영화 속에는 수호가 죽은 후에도 당연한 듯 수호의 방을 정리하고 새 옷을 사서 걸어두며 밤마다 현관의 센서등이 켜지면 수호가 왔다고 생각하는 엄마, 수호가 어렸을 때 베트남으로 일을 하러 가 아들이 죽은



아이들의 사진을 두고 그 날을 기억하는 가족들

뒤에야 가족들에게 돌아와 유가족의 고통을 경험하는 아빠, 오빠의 죽음으로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고 오빠가 너무 좋지만 죽은 오빠만 챙기는 엄마가 못내 서운한 동생이 있다. 죽은 친구를 기억하며 함께 하려고 계획했던 약속들을 혼자서 지켜나가는 친구와, 수호의 도움으로 살아남아 영원히 고마움과 마음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친구가 있고, 300명도 넘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있다. 그리고 가족을 잃지는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밖에 없어 슬프고 아픈 사람들이 있고, 시간이 흐르며 이제는 지쳐버린 사람들이 있다. 같은 상황에 놓여있어도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세월호 참사로 입은 상처가 너무 커 치유와 공감이 필요한 사람들. 영화 속 인물들의 다양한 일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들이기에 우리는 더욱 공감하고 마음을 쓰며 지나가는 영상 한 장면에도 울음을 그치지 못한다.

남은 사람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내용들을 제외하고도 큰 울림을 주는 장면들이 많았다. 영화에서는 보상금이라는 아주 단적인 예를 통해 보여줬지만, 유가족들은 저마다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입장과 선택을 달리하게 되더라도 그런 것들은 결코 그들의 관계를 끊을 수 없으며, 어떤 상황이 닥쳐도 서로가 앞으로 함께 가야 할 사람들임을 잊지 않는다.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서는 성경 속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보다 더 절실하게 희망을 경험하는 장면이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장면들이 허구의 것이 아니라는



수호가 없는 수호의 생일 모임

점에서 슬픔보다 벅찬 감정으로 다가왔다.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생일모임은 안산의 '치유공간 이웃'에서 실제로 진행됐었고, 생일모임 장면들도 실제에 가깝게 재현했다고 한다. 영화에서 유가족과 참석자들은 생일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기억을 나누고 슬픔과 아픔을 보듬는 활동을 통해 고통스럽지만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제 이들에게 생일은 누군가의 태어남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을 넘어, 기억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특별한 날이 되었다. 실제 생일모임을 통해서는 참석자들이 어떤 감정과 힘을 주고 받았을까.

세월호 참사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며 살았던 내가 어찌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가장 오랫동안 간절하게 묻고 의심하고 좌절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계시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 대해 누구에게 어떤 말도 쉽게 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동안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도 희미해질 수 있겠지만, 아무렇지 않은 4월은 앞으로 평생 만나지 못할 것 같다. 5주기를 맞는 시점에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가방마다 달아 놓은 노란 리본도, 잊지 않겠다 다짐하는 우리의 기억도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이다.

## 연합회 소식

### 월례아침기도회



4월 월례아침기도회가 4월 4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회원 Y협력지원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안수경 목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란 주제로 설교했다. 회원Y협력지원 위원들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특송이 있었다.

### 연변 민들레문화교류협회 회원의 날



연변 민들레문화교류협회 창립 16주년 기념 '회원의 날' 행사가 3월 23일(토)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변대학 예술학 원 소극장에서 열렸다. 2018 활동 보고, 2019 사업계획 보고 에 이어 축하공연이 있었다. 연변 여성들이 조선족 공동체 에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자!'는 설립 목적을 되새기 며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연합회에서는 3월 22일(금) 부터 26일(화)까지 연변 민들레문화교류협회를 방문해 회 원의 날 행사를 축하하고, 회장단, 이사과 위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 진행,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 씽크머니 펌핀 강사교육

2019년 제1차 씽크머니 펌핀 강사교육이 씽크머니 담당 회 원YWCA 실무자, 씽크머니 강사, 수도권지역경제교육센터 강사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7일(수) 연합회 강당에 서 열렸다. 펌핀 프로그램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온 라인 머니에 대한 예산을 계획하고 소비, 저축, 기부의 과



정을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2017년 연합회 지 하 펌핀 교실을 시작으로 2018년 수원YWCA에서 펌핀 2호 를 개설했으며 올해는 '찾아가는 펌핀'으로 전국적으로 확 대 운영할 예정이다.

### 전국 사무총장 역량강화 교육



전국 YWCA 사무총장 역량강화 교육이 4월 1일(월)~2일 (화)까지 YWCA버들캠핑장에서 열렸다. 3년 미만의 11개 회 원YWCA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영상훈련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YWCA 목적론', 'YWCA 운동이해' 교육, 협의 시간 등 을 가졌다. 연차별로 나뉜 4개의 그룹은 이후 7월까지 2회 에 걸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제1차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워크숍



2019년 제1차 YWCA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워크숍이 4월 11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16개 회원YWCA 가정·성 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쉼터, 지원시설 23곳 의 상담사와 시설장 24명이 참석했다. 한국YWCA연합회 부속시설특별조사팀이 2019년 부속시설 조사 계획을 발표 하고, 상담소 시설장 4명이 대표로 각 시설 활동과 현안을 발제했다. 참가자들은 소그룹으로 모여 현안과 이슈, 2019 년 활동방향, 시설장 네트워크 활동을 논의했다.

### 키다리학교 운영진 워크숍



2019년 키다리학교 운영진 워크숍이 4월 12일(금) 서대문 형무소와 연합회 펌핀교실에서 열렸다. 키다리학교 운영진 과 최향숙 연합회 위원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키다리 학교 특강(최향숙 위원), 서대문 형무소 탐방(여성독립운동 가 중심으로 돌아보기), 키다리학교 연대모임을 계획했다. YWCA 운동 의미와 운영진 역할에 대해 되새기며 주체적 인 활동을 다짐했다.

### YWCA 협력위원 상반기 워크숍



YWCA 협력위원 상반기 워크숍이 4월 15일(월) 연합회 회 의실에서 열렸다. 2019년도 협력위원 활동을 앞두고 영성

훈련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이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 다. 김형남(전주Y), 문상순(울산Y), 신영희(청주Y), 이해경 (목포Y), 전배자(강릉Y), 정동신(청주Y), 정숙(안양Y) 총 7명 이 YWCA 협력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회원YWCA 교육과 감사 등 전국YWCA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한국YWCA-더함 명동 소셜 빌딩 구축 협약



한국YWCA와 사회적혁신기업 더함은 4월 16일(화)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한국YWCA 회관의 소셜 빌딩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그동안 한국YWCA와 더함은 공통 적인 사회적 가치와 목표로 한국YWCA 주차장 부지에 커 뮤니티하우스 마실을 구축하며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 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한국YWCA 회관을 소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지역사회 랜드마크이자 사회혁신 과 비영리 활동의 중심지로 활용해나갈 예정이다.

### 239차 불의날 탈핵캠페인



'WTO 승소, 고준위핵폐기물' 주제로 4월 23일(화) 연합회 회관 앞에서 239차 불의날 탈핵캠페인을 진행했다. 수원 YWCA 자원활동가, 실무자 7명, 연합회 탈핵생명위원, 실

## 연합회 소식

무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방사능 오염 식품 문제가 국민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재훈 탈핵생명위원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주제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 YWCA 전국회장단협의회



2019년 YWCA 전국회장단협의회가 4월 25일(목) 서울 YWCA 강당에서 열렸다. '부속시설 관련 YWCA 현황'을 전국회장단과 공유하며, '사회복지시설 환경변화에 따른 YWCA 부속시설 운영과제'(정무성 승실사이버대 총장), '사회변화에 따른 YWCA 노무 이해'(표대중 노무사) 강의, '공익법인 세무 이해'(유성희 삼임이사) 협의에 이어 2019 부속시설 관리지침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했다. 50

개 회원YWCA 회장, 부회장, 연합회 회장단, 법인 이사장, 임원, 회원YWCA 사무총장, 실무활동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 제1차 'YWCA 슬기로운 청년생활' 교육 워크숍



2019년 제1차 'YWCA 슬기로운 청년생활' 금융교육 워크숍이 4월 20일(토)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선정된 5개 지역(대전, 마산, 진주, 창원, 청주) 청년대표, 멘토링을 맡은 문현규 에어블랙 대표, 실무자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슬기로운 청년생활'은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경제금융 활동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수익구조를 설계하고자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모사업 진행상황 공유, 클라우드 펀딩 지원을 위한 교육, 토의가 있었다.

##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9. 3. 1 ~ 2019. 3.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순복, 권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미애,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영자, 김은경, 김은영, 김일근,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민영희,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경, 박인희, 박진화, 박희정, 배유미,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보람, 백혜진, 서은미,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양종원,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주영, 이지윤, 이찬형, 이찬진, 이행자,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선희,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채정희, 천우란, 최수선,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황홍백	1,860,000
개인 기부	이진용, 전현숙	87,720
회원YWCA	거제YWCA	326,377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기쁨의 교회, 하늘가족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330,000
기관 및 단체	르뱅(명동성당점), 레오니다스, 전광수 Coffee House(명동성당점), 에썬레젤라또(명동점), 알파 명동성당점	31,100
합계		2,635,197

## 故 김현자 명예연합위원 1주기 추모예배



# 천국소망을 보여준 믿음의 증인

故 김현자 명예연합위원 1주기 추모예배가 4월 18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있었다. '권사님은 믿음의 증인이 되셨습니다'는 제목으로 오덕호 목사(서울산정현교회)가 말씀을 전했다.故 김현자 명예연합위원의 조카인 오 목사는 "작은어머니故 김현자 권사님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여성지도자로 삶을 사셨고, 매순간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셔서 후손들에게 천국소망을 보여주셨다"고 회고했다. 이종임 연합회 제2부회장이 진행한 2부<추모의 시간>에서 원영희 연합회 제1부회장의 약력소개, 차경애 YWCA복지사업단 이사장, 최만자 전 여성신학회 회장의 추모사 낭독이

있었다. 차경애 이사장은 추모사에서故 김현자 명예연합위원이 한국YWCA 최초로 미국YWCA에 수습간사로 파견되면서, 한국YWCA를 세계적인 운동단체로 이끄는 길을 열었음을 강조했다. 최만자 위원은 "매사에 엄격하고 완벽한 지도력을 발휘한 동시에, 사람에 대해 한없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자애로운 분이셨다"고 회고했다. 이어故 김현자 명예연합위원의 딸 오혜련 각당복지재단 상임이사가 편저한 김현자 1주기 추모집 <사랑한 시간을 찾아서>를 헌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 대표로 아들 오준호 KAIST 교수가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 YWCA 활동

1947~1949	이화여대 대학 Y 회장
1951~1953	미국YWCA 파견 수습간사(한국YWCA 최초 해외파견)
1953~1962	한국YWCA연합회 대학생부 간사
1963~1982/ 91~97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1963~1970	한국YWCA연합회 대학생부(63-67) 프로그램부(67-70)위원장
1970~1982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971~1979	세계YWCA 실행위원
1982~1985	한국YWCA연합회 공천위원, 지도자양성위원
1988~1991	한국YWCA연합회 프로그램및사회문제위원
1997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추대
2003	제35회 YWCA 전국대회 대상 수상



## 김현자 1주기 추모집 <사랑한 시간을 찾아서>

오혜련 편저, VIVI2, 2019. 4.

일제시대에 태어나 한국 근대사를 온몸으로 살아낸 여성지도자이자 선각자 김현자, '좋은 향내를 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 그대로 한국여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장섰으며, 그 도대를 만드는 데 헌신했다. 이 책은 각계각층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가족의 회고담을 통해 그가 누렸던 노년의 아름다움, 여성으로서 고난과 충돌의 시대 너머 사랑, 행복, 기쁨, 평안으로 안내한다.

경기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이전예배 및 회장 이·취임식



광명YWCA는 3월 18일(월) 계명성교회에서 광명Y 이전예배 및 제15대·제16대 회장 이·취임식을 하였다. 차정운 목사(계명성교회)가 주제말씀을, 송원섭 목사(늘사랑교회)가 축도해 주셨다. 이·취임식에는 공로상 전달, 축시와 헌신서약 순서가 있었다. 2015년부터 광명Y 위원장, 회계이사를 역임한 정숙자 신임회장은 광명Y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남양주YWCA

이종은 간사

돌봄과 살림 통합교육



남양주YWCA는 4월 8일(월)부터 19일(금)까지 살림·아기·산모돌봄 분야를 지원하는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60시간 돌봄과 살림 통합교육을 진행했다. YWCA이해, 탈핵과 성평등 중점운동에 대한 내용도 공유하였다.

부천YWCA

김은아 팀장

청소년보호를 위한 QR코드 제작 및 배포 회의

부천YWCA에서는 3월 27(수) '찍으면 보인다-청소년보호를 위한 QR코드 제작 및 배포사업' 회의를 진행했다. 위기 발생 시 청소년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단체의 연락처 및 지원



내용 등을 쉽게 알도록 QR코드를 제작하여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에 부착 및 배포하고, 사이버도래상담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진행했다. 이 사업은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청개구리밥차, 스마일어케인 등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성남YWCA

김경진 간사

Y-틴 인준식



성남YWCA는 4월 13일(토) Y-틴 24명, Y-틴 서포터즈 3명이 모여 2019년도 성남YWCA 청년·청소년 활동가 인준식을 가졌다. 청소년·환경부 장명자 위원장의 격려사, 레크레이션 진행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수원YWCA

정혜진 주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원수요문화제



수원YWCA는 4월 3일(수) 회원 40여명과 함께 수원평화나비와 연대하여 수요문화제를 진행했다. 수원 평화의 소녀

상 앞에서 진행한 이번 문화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하는 발언과, '마른잎 다시 살아나, '아름다운 것들' 등을 노래하는 평화공연, 어린이회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용기를 응원하며 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YWCA

이규숙 부장

5기 성인지정책 모니터단 양성과정



안양YWCA는 시민들과 함께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모니터링 하는 제5기 모니터단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성인지정책에 대한 주민이해를 확대하여 시정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는 이번 교육에는 제도권과 여성운동계의 강선미 박사(하랑연구소 대표), 손영숙 박사(젠더코칭 대표), 안선덕 박사(젠더다양성 대표) 등이 활동을 이끌었다. 교육을 이수한 시민모니터들은 추후 사업현장 모니터링과 시의회 방청 모니터링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워킹맘 주거공간개선 사업



의정부YWCA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3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와 의정부시 지원으로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주거공간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섯 명이 한 조가 되어 1일 8시간동안 정리수납을 해주는 서비스로 수납에 필요한 소품만 개인 부담이며, 모두 무료이다.

파주YWCA

전혜은 간사

농촌살리기 운동



파주YWCA는 지난 8년간 꽃길 조성 사업으로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기치 아래 농촌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4월 8일(월) 적성면 주민들과 시민들이 간파천변에 심었던 이팝나무에 비료를 주고, 잡초를 제거하며, 넝쿨을 벗겨내는 작업을 했다.

하남YWCA

김상미 간사

기후에너지 강사교육



하남YWCA는 4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기후변화 기본 지식과 재생에너지 및 정책에 대한 강사교육을 하였다. 환경보존에 관심이 있는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에너지 사용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하남시내 에너지 자립 및 기후 환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동부

거제YWCA

심은옥 간사

거제고등학교와 함께 하는 '애들이 밥먹자'

거제YWCA는 4월 4일(목) 거제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침밥 먹기 캠페인 '애들이 밥먹자'를 진행했다. 아침밥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주먹밥을 나

## 회원YWCA 소식



누어주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함께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김해YWCA는 4월 8일(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보라데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슬로건인 'LOOK AGAIN'을 외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구YWCA

김보현 간사

### 앞산아래 벚꽃마켓



대구YWCA는 3월 30일(토) 아나바다 운동의 일환으로 '앞산아래 벚꽃마켓'을 진행했다.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부스를 운영했다.

마산YWCA

한혜경 부장

### 에너지절약 실천 협약식



마산YWCA는 지역 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브라보! 마이 에코 라이프'를 전개하고 있다. 4월 4일(목)에는 지역 내 두 곳의 아파트와 에너지절약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한국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마산삼계2관 리소와 마산삼계대동다숲아파트 관계자, 이애라 사무총장이 입주민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YWCA

김예은 간사

### 제1회 Y-MARKET



부산YWCA는 4월 9일(화)부터 10일(수)까지 부산YWCA 주차장에서 제1회 Y-MARKET을 열었다. 신발과 옷, 커피, 생협물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모두 시민활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

사천YWCA는 3월 20일(수)부터 사천경찰서, 사천시청 외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합동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으로, 폭력과 따돌림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노력하고 있다.



양산YWCA

정은정 간사

### 노인소비자교육 실시



양산YWCA는 4월 10일(수) 양산옹상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소비자교육을 진행했다. 지역 어르신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수집된 빈도가 높은 노인 소비자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법을 알렸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비자교육을 전개할 예정이다.

울산YWCA

김예린 간사

### 회원증모발대식



울산YWCA는 '생명세상, 당신의 참여로'를 주제로 4월 8일(월) 2019년 회원증모발대식을 열었다. 돌봄, 평화, 청년 리더십 개발에 함께 할 여성지도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 YWCA 정신에 따라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진주YWCA

김태진 팀장

### Y-틴 동아리 인준식



진주YWCA는 3월 30일(토) 회관 대강당에서 2019년 Y-틴 동아리 인준식을 가졌다. '등대지기', '날개', 'S.N.S' 3개의 Y-틴 클럽이 Y-틴 선서와 Y-틴 목적문을 낭독하며 활동을 다짐하고, YWCA와 Y-틴 이해하기 퀴즈도 풀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진해YWCA

이재경 부장

### 제57회 진해 군항제-시민사회단체 연대 탈핵 캠페인



진해YWCA는 4월 5일(목) 군항제축제가 한창인 진해경화역공원 일대에서 탈핵경남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탈핵 캠페인과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진해YWCA는 매월 다양한 형태로 탈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창원YWCA

김진아 간사

### 센터 공간모니터링



## 회원YWCA 소식

창원YWCA는 3월 22일(금) 진해 천자봉 해오름길 7.6km 구간을 걸으며 성인지적 관점으로 공간을 모니터링했다. 안전성, 편의성, 접근성, 친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성인 지적 관점 없이 제작된 표지판을 발견했다. 젠더 공간모니터링을 통해 성평등한 지역 공간으로 바꾸어가고자 한다.

### 통영YWCA

변은실 팀장

### Y-틴 인준식



통영YWCA는 3월 16일(토) 2019년 Y-틴 인준식을 가졌다. 통영여자중·고교, 통영남중, 충무여자중·고교 등 50여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Y-틴 회원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 통영YWCA Y-틴은 두 개의 클럽으로 나누어 양성평등과 환경보전을 주제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포항YWCA

이유정 간사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일일 파티쉐



포항YWCA는 4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일일 파티쉐'를 총 8회 진행했다. 총 320명이 참여하여 일일 파티쉐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포항YWCA는 문화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문화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북부

### 강릉YWCA

이신애 부장

### 회원운동 발대식



강릉YWCA 회원운동 발대식 4월 8일(월) 열렸다. 예배, 고문희 증경회장의 강의, 회원증모 자신감을 위한 토론 및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 서울YWCA

성지희 간사

### 서울Y 스포츠센터 재개관 감사예배



서울YWCA는 4월 1일(월) 스포츠센터 로비에서 스포츠센터 재개관 감사예배를 드렸다. 김용수 목사(반석교회)가 '봉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서울Y 스포츠센터가 하나님의 기관으로 잘 운영되기를 축원했고 이유림 회장이 축사를 통해 스포츠센터가 6개월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축하하며 기다려준 회원과 시민에게 감사를 전했다.

### 속초YWCA

주미란 간사

### 소비자전문강사 양성교육

속초YWCA가 주관하고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전문강사 양성교육을 3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속초YWCA 강당에서 총 40시간 진행했다. 교육 수료생들은 강사 스터디 모임을 통해 역



량강화를 계속하고, 지역사회에서 소비자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 인천YWCA

이강희 간사

### 창립 49주년 기념 아침월레기도회



인천YWCA는 4월 3일(수) 창립 49주년 기념 아침월레기도회를 열었다. 증경회장단, 이사, 실무자,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예배 후 50주년을 향한 인천YWCA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해주시길 바라며 감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 동해YWCA

정미숙 팀장

### 사랑나눔바자회



동해YWCA는 4월 13일(토) 동해 코스모스호텔 7층에서 사랑나눔바자회 생명사랑 나눔장터를 열었다. YWCA운동을 알리는 전시마당, 동해시 관내 동아리들이 출연하는 공연

마당이 있었고 지역농수산물판매 및 친환경먹거리, 기타 공산품등을 판매했다. 마련된 기금은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과 북한어린이돕기에 쓰일 예정이다.

### 원주YWCA

김민영 간사

### 이사·실무자 교육



원주YWCA는 4월 8일(월) 이사·실무자를 대상으로 YWCA 교육을 진행했다. 'YWCA 목적문 영성훈련교재'를 가지고 이천진 목사님과 함께 YWCA 목적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 춘천YWCA

허현주 간사

### 아기돌보미 신규교육



춘천YWCA는 3월 19일(화)부터 29(금)까지 아기돌보미를 위한 신규기본교육을 진행하여 21명이 수료했다. 춘천YWCA는 육아 돌보미의 전문성을 높이고 육아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육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서부

### 광양YWCA

이현숙 간사

### 노인소비자 교육

광양YWCA는 4월 16(화) 광영 금호교회 경로대학에서 어르신 70분을 대상으로 '목소리 나는 소비자 교육'을 진행했다. 다양한 피해사례를 통해 어르신들이 주의 할 사항들과

## 회원YWCA 소식



대처방안에 대해 알기 쉽게 강의를 진행했다.

광주YWCA

손유영 부장

### 돌봄회원 문화탐방



광주YWCA는 4월 6일(토) 아침고요수목원과 남이섬에서 돌봄회원 85명이 참가하여 문화탐방을 했다. 광주YWCA는 돌봄회원을 격려하고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야유회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400여명의 살림, 산모·신생아 돌봄회원들이 생명 살림을 실천하며 돌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원YWCA

임진아 간사

### 살림·산모 돌봄이 교육



남원YWCA는 3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살림·산모 돌봄이 교육을 진행했다. 돌봄서비스 기술을 갖춘 우수한 돌

봄이를 양성하여 자아실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직원교육



목포YWCA는 4월 12일(금)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직원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SNS, 메일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와 악성코드감염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을 위한 외국어교육 개강



서귀포YWCA는 4월 2일(화)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사무실에서 시장상인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의를 개강했다. 4월부터 6월까지 매일올레시장 상인들의 상점에 방문하여 외국어교육을 진행한다. 2017년부터 3년째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물품판매 및 고객응대에 필요한 영어와 중국어회화를 교육한다.

순천YWCA

양경희 간사

### Y-틴 인준식

순천YWCA Y-틴 인준식이 3월 30일(토) 사회적기업 해피



락에서 열렸다. 총 152명 참석한 이날 순천YWCA 회장, 청소년·대학위원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해주었고, 2019년 Y-틴 활동 중점운동 목표와 목적을 공유했다. 7개 고등학교 Y-틴 클럽이 인준을 받았다.

여수YWCA

김혜영 간사

### 회원증모발대식



여수YWCA는 4월 9일(화) 회관 강당에서 회원증모발대식을 진행했다. 각 조별 증모전략 발표시간을 가지며 회원증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사, 위원,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익산YWCA

홍진 간사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익산YWCA는 4월 13일(토) 제2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한다. 청소년유해환경, 병원, 보험사, 학원, 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감시단원과 자원봉사 청소년, 청소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 창립 50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



전주YWCA 창립 50주년 기념예배와 기념식이 4월 23일(화) 전주바울센터에서 열렸다. 기념식에서 축사와 전주YWCA 50주년 영상 상영, 봉사상과 근속상, 우수회원상, 감사패 시상, 비전선포식이 있었다. 전주YWCA 50년사 발간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제주YWCA

박경희 팀장

### '산모·아이돌봄이 양성과정' 프로그램



제주YWCA 고령자인재은행은 4월 5일(금)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산모·아이돌봄이 양성과정' 개강식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산모·아이돌봄이 양성과정'은 50세 이상 장년층 22명이 참여하여 취업의욕고취프로그램과 직무능력향상훈련 및 일자리개척 동아리활동 등을 펼친다.

## 중부

대전YWCA

안소진 간사

### 창립 73주년 기념예배 및 회원증모 기부나눔축제 발대식

대전YWCA는 4월 10일(수) 창립 73주년 기념예배 및 회원증모 기부나눔축제 발대식을 진행했다. 기념예배는 정혜원

## 회원YWCA 소식



제1부회장의 인도로 김진태 목사(보문감리교회)가 신앙황금률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2019년 회원증모 기부나눔축제를 진행하여 회원증모계획을 알리고 위원회별로 회원증모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부나눔축제는 5월 8일(수)까지 계속된다.

### 세종YWCA

김영옥 간사

#### '로컬푸드 연계를 통한 도농상생 일자리 창출' 사업개시



세종YWCA는 4월 19일(화)부터 7월 3일(수)까지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와 지역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로컬푸드 연계를 통한 도농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하고 세종YWCA가 수행기관이 되어 참여자 모집, 레시피를 개발하여 가공품을 생산하고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제천YWCA

김미경 팀장

####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제천YWCA 고령자인재은행은 4월 17일(수)부터 8일간 만 50세 이상 남성 구직자 20명을 대상으로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건물관리원 교육을 진행했다. 정년퇴직 및 장기 실업으로 인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경비 실무에 관한 직무훈련, 집단상담,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했다.



### 청주YWCA

이현주 팀장

#### Y-틴 인준식



청주YWCA는 4월 6일(토) Y-틴 인준식을 진행했다. 기다리 학교, 온새미로 등 5개 동아리가 인준을 받았으며, 박충현 청주Y-틴 협의회장을 비롯해 동아리 임원에게 임명장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 충주YWCA

이예림 간사

#### Y-틴 인준식



충주YWCA는 3월 9일(토) 60여명의 중·고등학생이 참가하여 Y-틴 인준식을 진행했다. 임명장과 동아리 인준서 수여, 회원선서 및 Y-틴 목적문 낭독, 친목 시간을 가졌다. '진로포실'(청소년진로), '시나브로'(청소년유해환경정화), '그린자'(그림으로사회문제이슈표현) 동아리가 캠페인, 토론회,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청소년 진로문제, 환경문제, 사회문제들을 알리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2019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확대됩니다

## 제도 변경 사항

### 지원금 인상

· 일태아 50만원 → 60만원, 다태아 90만원 → 100만원

### 지원금 사용기간 연장

· 분만예정일(유·출산일)로부터 60일 → 1년

### 지원금 이용범위 확대

- 임신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 1세 이하 영유아의 진료비로 사용 가능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





## 신청방법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온라인(전화, 홈페이지, 어플) 신청



## 지원문의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비씨카드	 SAMSUNG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번없이 129	1577-1000	1899-4651	1566-3336	1899-4282

